



20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 17일 설립한 기관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ACC재단 홈페이지



MISSION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진흥·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VISION

아시아 문화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주요 사업

- 문화유통**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콘텐츠 활용 및 국내외 유통
 - 아시아컬처마켓 운영
- 문화사업개발**
 - 아시아문화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 아시아문화 관련 출판물 기획 제작 및 발간
 - 아시아문화 관련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예술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사업
 -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중화 프로그램 및 야외 공연, 축제 운영
- 어린이문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관리 및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체험관 및 도서관 콘텐츠 개발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및 어린이가족문화축제 운영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비스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및 대관사업

차 례

전 시

- [걷기, 해매기 08](#)
- [라이트 온 더 무브 10](#)
- [물입미감, 디지털로 본 자연과 휴머니즘 12](#)
- [반디산책 :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14](#)
-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16](#)
- [쓰고도 달콤한 18](#)
- [아쿠아 천국 20](#)
- [이퀄리브리엄 22](#)
- [일상첨화 日常添畫 24](#)
- [좀비 주의 26](#)
-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8](#)
-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30](#)
- [포스트휴먼 앙상블 32](#)
- [하늬풍경 34](#)
- [행성공명 36](#)

필 름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40](#)
- [스틸 사이드 41](#)
-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42](#)
- [선유후부가 43](#)
- [찬란함의 무덤 44](#)

다큐멘터리

-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48](#)
-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1 49](#)
-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2 50](#)

미디어아트영상

-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54](#)
- [고사리 걸음 55](#)
- [공생도시 56](#)
-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57](#)
-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58](#)
-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 59](#)
- [끝섬\(VER.2\) 60](#)
-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 61](#)
- [뉴 월드? II 62](#)
- [돌러보기 63](#)
- [루덴스토피아 64](#)
- [레이온 공장 달리기 65](#)
- [마뚝의 날: 풍수토니 필의 일주일 66](#)
- [머신 러닝 67](#)
-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68](#)
- [바벨x바벨 II 69](#)
- [부식 풍경 70](#)
- [불과 얼음의 노래 ver.ACC 71](#)
- [사운드 월 / 사운드 슬로프 72](#)
- [아나객잔 : 화광 73](#)
- [9개의 지구 언어로 쓰인 인터스텔라 메시지 74](#)
- [아홉, 구름, 꿈 75](#)
- [이별만상 - 여러 가지 안녕 76](#)
- [입체 프레파라트 77](#)
-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Everything will be OK 78](#)
- [조립된 풍경화 79](#)
- [지상지하 80](#)
- [차원 너머 81](#)
- [카본 클럭 @ACC 82](#)
- [화석이 될 수 없어 83](#)

공 연

융복합 공연

- [두 개의 눈 86](#)
- [비비런 88](#)
- [자유결혼 - 영화더빙쇼 90](#)

연극

-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92](#)
- [나는 광주에 없었다 94](#)
- [남편 없는 부두 96](#)
- [동상기 98](#)
- [레드 올랜더스 100](#)
- [로제타 102](#)
- [시간을 칠하는 사람 104](#)
- [전쟁 후에 106](#)
- [접시꽃 길 85번지 108](#)
- [지정 110](#)
-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 112](#)

뮤지컬

- [솔루우수우 114](#)
- [쿵짝 두 번째 이야기 - 얼썬 116](#)

음악극

- [그 물 \(The Water\) 118](#)
- [대동춤 120](#)
- [스토리 인 아시아 122](#)
- [짱하고 해튼 날 124](#)

무용극

- [공허와의 만남 126](#)
- [마디와 매듭 128](#)
- [척 130](#)
- [호모 루피엔스 132](#)
- [히어데어 \(HereThere\) 134](#)

청소년/어린이 공연

청소년 공연

- [길 위의 아이 138](#)
- [춤추는 과학자들 140](#)

어린이 공연

- [개굴개굴 고래고래 142](#)
- [거인 앙갈로 144](#)
- [괴물 연을 그리다 146](#)
- [깡깡나무 148](#)
- [나무의 아이 150](#)
- [달을 묻을래 152](#)
- [마법의 샘 154](#)
- [막대뚝뚝 피지컬 - 불난 오니 156](#)
-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 158](#)
- [보이야르의 노래 160](#)
- [세 친구 162](#)
-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164](#)
- [어득시니 166](#)
- [어디로 가야 하지? 168](#)
-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170](#)
- [출동! 마임소방관 172](#)
- [하티와 광대들 174](#)

기 타

- [찾아가는 예술극장 176](#)
-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17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SNS 179](#)
- [어린이문화원 180](#)

ASIA CULTURE CENTER

전시

걷기, 헤매기

Walking, Wandering

전시내용 걷기라는 일상적인 행위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는 2023 ACC 콘텍스트 전시

개요 우리는 날마다, 전 생애에 걸쳐 걷는다. 누군가는 순례를 떠나고 누군가는 행진하듯, 걷는 일에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2023 ACC 콘텍스트 《걷기, 헤매기》는 걷기라는 일상적인 행위에 담긴 의미를 돌아본다. 한걸음 한걸음 걸어나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디에 도달하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한다.

장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아트, 키네틱 아트, 사운드 아트

참여 작가/팀(13)

국내(7) : 강동주, 김방주, 김재민이, 리스투더시티, 박고은, 새로운 질서 그 후, 이창운

국외(6) : 량즈위+사라 워, 레지나 호세 갈린도, 리 카이 청,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미라 리즈키 쿠르니아, 프란시스 알리스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특이사항 : 5개 미디어아트 영상 작품 개별 전시 가능



걷기, 헤매기
홈페이지

라이트 온 더 무브

LIGHT ON THE MOVE

전시내용 아시아 근현대사 민주화 과정 속 비극적 이슈들에 주목한 지역과 아시아 작가를 통해, 나라는 다르지만 아시아 근현대사의 아픔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전시

개요 광주란 지역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빛, 역사, 공간'이란 키워드를 추출하고, 동일한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는 정정주, 인도네시아 랑가 부르바야 작가를 초청하여 지역-아시아 작가의 작품을 매칭, 아시아 근현대사 민주화 과정 속 아픔을 국내외 대중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상호 공감을 도모하는 전시

장르 비디오 영상, 융복합 미디어아트, 설치, 사진 등

참여 작가/팀(2)

국내(1) : 정정주

국외(1) : 랑가 부르바야(Ranga Purbay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앙 메스 56(Ruang MES 56)멤버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라이트 온 더 무브
홈페이지

몰입미감, 디지털로 본 자연과 휴머니즘

Aesthetic immersion: Nature and Humanity through the Looking Digitailizing

전시내용 과거의 서정성을 간직한 근대 아시아 미술을 디지털 비주얼로 창·제작하여 관람객들이 작품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몰입형 실감 전시이다. 한국·베트남의 근현대 원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해석과 디지털라이징 작업을 통해 작품이 담고 있는 자연과 휴머니즘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개요 전시는 설렘(프롤로그), 몰입, 공간에 새기다(1부), 체험, 손끝에 새기다(2부), 감동, 가슴에 새기다(3부), 여정, 기억에 새기다(에필로그) 등 총 5개의 주제로 포스트 뮤지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한다.

프롤로그는 라이팅 오브제를 이용해 엽서만한 원화를 하나의 공간으로 디지털라이징하여 전체 전시 컨셉트를 상징화하고, 작품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연출한다.

1부는 '원작의 아우라로부터 파생된 아름다움이 물든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로 초대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총 14점의 원화를 디지털라이징하여 수묵화의 '기운생동'한 정신과 근대 풍경화의 아름다움을 '빛과 색채의 정원'이라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다.

2부는 융복합 인터랙션 기술을 통해 작품과의 교감이 이루는 공간으로 특징적 비주얼 모티브 혹은 내재된 내러티브에 최적화된 인터랙션 UX와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관람객들이 작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부는 원화의 실재와 디지털의 가상이 만들어 낸 아우라의 원형과 변주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작품을 직접 보며 느낄 수 있는 감흥과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움을 통해 동일 공간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재미술관, 가나문화재단, 베트남국립미술관의 소장품 9점이 소개된다.

에필로그는 시를 이용해 관람객들의 얼굴을 근대 인물화의 얼굴로 합성하여 마치 과거의 작가가 나의 얼굴을 그려주는 것 같은 경험으로 전시의 여정을 기념한다.

장르 미디어아트, 인터랙션·인공지능 체험 콘텐츠 등

참여 작가/팀(20)

국내 (14) : 이종섭, 김규진, 이용우, 이경승, 함대정, 서진달, 김중찬, 황술조, 김중현, 채용신, 이제창, 김종태<국립현대미술관> 허달재<의재미술관>, 김창열<가나문화재단>

국외 (6) : 다오득(Đào Đức), 팜응옥시(Phạm Ngọc Sỹ), 팜반돈(Phạm Văn Đôn), 레람(Lê Lam), 부딘뚜언(Vũ Đình Tuấn), 쩐반컨(Trần Văn Căn) <베트남국립미술관>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특이사항 : 1부 유통 가능, 2,3부는 별도 협의 필요



몰입미감, 디지털로 본 자연과 휴머니즘
홍보영상 / 홈페이지



반디산책 :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BANDI WALK: One Step Closer to Our Earth

전시내용 기후 위기극복 주제의 동시대 미술작품 감상 및 체험이 가능한 야외 ·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

개요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은 인류세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망하는 전시이다. 총 3부로 구성된 《반디산책》은 예술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과거 지구의 풍요로웠던 생태계를 기억하고, 현재의 지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볼 수 있는 야외 전시이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전당 곳곳을 산책하며 영상과 설치 작품들을 발견하고 감상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다.

1부 '기억하기: 사라지는 것 지키기'는 성실화랑, 야노베 켄지(Yanobe Kenji), 이조흠, 정혜정의 작품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마련한다.

2부 '실천하기: 즐겁게 선택한 불편함'은 디지털 세로토닌(Digital Serotonin), 에이에이비비(AABB), 엄아롱, 이병찬, 장종완, 정혜정, 찰스 림 이 용(Charles Lim Yi Yong), 최지이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공론의 장을 제시한다.

3부 '준비하기: 미래 자연과 친구하기'에서는 김아영, 김을지로, 디지털 세로토닌(Digital Serotonin), 레이 레이(Lei Lei), 임용현, 카입×이슬비×이지현 작품을 통해 미래의 자연을 상상하고, 지구와 다시 친구가 되기 위한 화해의 교두보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반디산책》은 '2022 ACC 지역작가 미디어아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2명의 작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출신 작가 총 16팀의 작품 27점을 소개한다. 포스트코로나를 향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류세를 사는 지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장르 영상, 설치, 조각, 융복합 미디어아트(앱아트, 증강현실 등)

참여 작가/팀(16)

국내(13) : 김아영, 김을지로, 디지털 세로토닌, 성실화랑, 엄아롱, 에이에이비비, 이병찬, 이조흠, 임용현, 장종완, 정혜정, 최지이, 카입×이슬비×이지현

국외(3) : 레이 레이(Lei Lei, 중국), 야노베 켄지(Yanobe Kenji, 일본), 찰스 림 이 용(Charles Lim Yi Yong, 싱가포르)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특이사항 : 11개 미디어아트 영상 작품 개별 전시 가능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홈페이지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Scenery of the Emptiness, and Asia

전시내용 아시아 고유의 사상과 미(美), 그리고 공간을 탐구함으로써 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상상의 지평을 확장하는 융복합 콘텐츠 전시

개요 전시는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1. 빛으로부터

‘빛’은 존재하나 소유할 수 없는 태초의 자연상태이다. 아시아의 전통적 사유방식에서는 대우주도, 자연도, 커다란 산도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생각하며 생명의 근원을 ‘빛’으로 여겼다. 그래서 ‘빛’은 현상이자 만물의 근원이다. 우주 삼라만상을 화합하는 빛으로 그 흐름에 따라 비정형적인 이미지를 창작한다.

2. 생동하는 기운

‘빛’은 곧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진 에너지의 집합체로 변화해 간다. 그 시작과 소멸을 구분하기 어려우나 나타나는 ‘기(氣)’의 요소는 현재 우리를 둘러싼 만물을 이루는 본성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에너지’는 물질이자 정신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 우주 만물의 연결된 순리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은 상호작용한다.

3. 관계하기: 인간과 자연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상태와 변화를 교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서로 대립없이 관계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교감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밑바탕에는 자연을 정신적으로 계승하려는 아시아 특유의 사상이 깔려 있다.

4. 공존하는 풍경: 안과 밖

아시아에서 공간(空間)이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서로를 구분하며 연결하고 있고,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며, 각각의 요소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중첩된 시각적 풍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써 역할을 한다.

5. 호흡의 시간

본 공간에서 ‘호흡의 시간’은 정신적 육체적 쉼과 휴식을 의미한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한 후 새로운 상상을 하도록 실천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자연속에서의 명상과 사색으로 풀어낸다. 마치 밤하늘의 정원을 산책하듯이 다시금 에너지를 되찾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변화하는 자연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고요한 빛의 정원이다.

장르 설치, 융복합 미디어아트, 영상 등

참여 작가/팀(17)

국내(9) : 정화용, 고휘, 정성윤, 이지연, 신봉철, 서동주, 이용주, 김봉관, 녹음

국외(8) : A.A. 무라카미, 히토시 쿠리야마, 장 줄리앙 푸스, 료이치 쿠로카와, 료타 쿠와쿠보, 교코 하마구치, 호이 텅, 피아 만니코



전시 투어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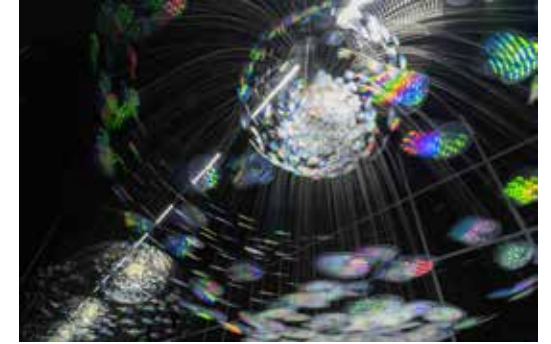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유통 가능 콘텐츠 : 일부 작품(담당자 협의 필요)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홍보영상 / 홈페이지



쓰고도 달콤한

Sweet Sorrow

전시내용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지역, 아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재고하는 전시

개요 2022 ACC×GB 지역-아시아 《쓰고도 달콤한》은 지역과 아시아 출신 작가 6인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탐색하는 전시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7년부터 지역 연계 전시 사업으로 ACC 지역-아시아 기획전을 개최해왔다. 본 전시는 (재)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하여 양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민주·인권·평화라는 대주제 아래 예술가의 시선에서 인간 존엄에 관해 이야기 한다.

장르 미디어, 회화,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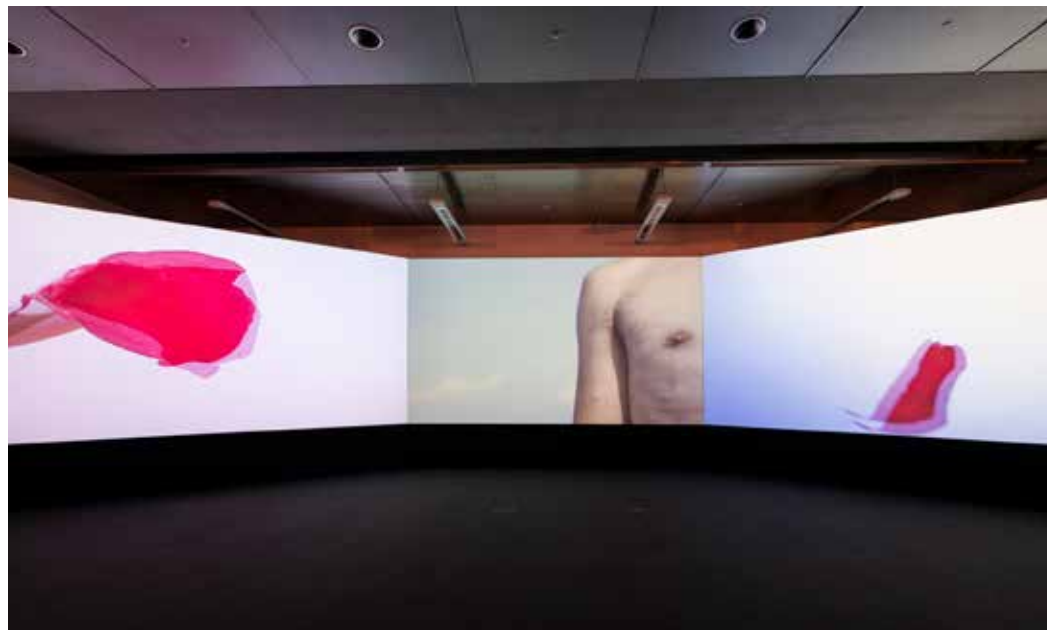
참여 작가/팀(6)

국내(3) : 민성홍, 이매리, 전나환

국외(3) : 다보츠 (Darbotz, 인도네시아),

스베이 사레스 (Svay Sareth, 캄보디아),

쩨 루엡 (Tran Luong, 베트남)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쓰고도 달콤한
홈페이지

아쿠아 천국

Aqua Paradiso

전시내용 수생태계와 인간의 대안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융·복합 전시

개요 《아쿠아 천국》은 인류의 신화와 역사 속에 깃든 물의 서사, 자연생태를 순환시키고 치유하는 다양한 물의 서사를 소개함으로써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11명이 참여하는 이 전시는 인간이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살아갈 때 등장한 ‘물’,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함께한 ‘물’,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며 서사를 창조하는 ‘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절대 조절자로서의 ‘물’, 우주를 구동하는 물리학적 유체로서의 ‘물’, 치유자로서의 ‘물’ 등 다양한 물의 서사를 소개한다. 인간, 자연, 우주의 생존과 균형 유지에 ‘물’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자연이 가진 잠재력과 ‘송고함’을 상기시킨다.

장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참여 작가/팀(11)

국내(7) : 권혜원, 김태은, 닥드정, 리경, 부지현, 빠키, 에코 오롯
국외(4) : 리우 위(Liu Yu, 대만), 마리안토(Maryanto, 인도네시아), 아드리앵 M & 클레어 B(Adrien M & Claire B, 프랑스), 이 이란(Yee I-Lann, 말레이시아)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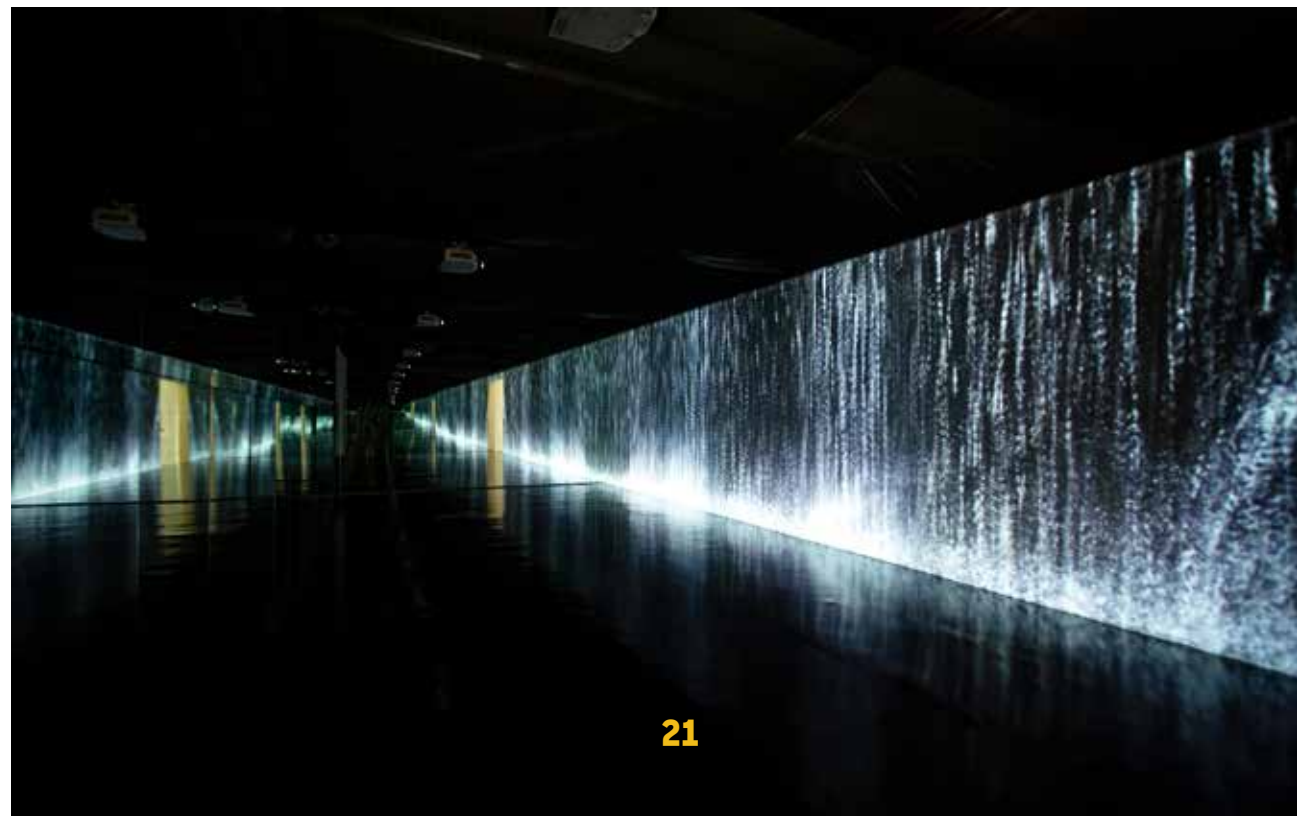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가 및 작품 구성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1달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아쿠아 천국 홈페이지



이퀄리브리엄

Equilibrium

전시내용 근래에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주목한 전시

개요 '이퀄리브리엄 Equilibrium'은 근래에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주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개도하는 캠페인적인 접근보다는 한 사회에 속한 개별 개인들의 환경과 관련된 기억에서 출발하여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역사적 측면을 미시적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좀 더 환경이슈에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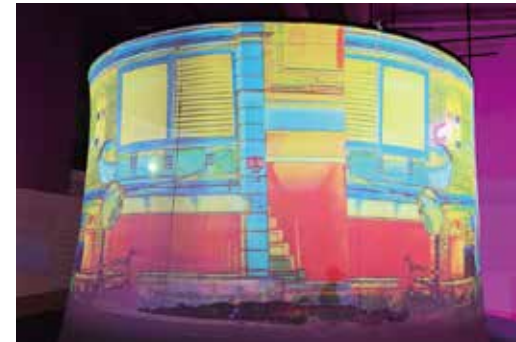
장르 비디오 영상, 융복합 미디어아트, 설치, 회화 등

참여 작가/팀(11)

※ 최종 전시 작품은 대상기관 및 작가와의 협의 후 확정

국내 (5) : 김준(상호 : 정화공장), 김설아, 백정기, 장전프로젝트(장준영&전지윤)

국외 (6) : 응우옌 우담 트랑(Udam Tran Nguyen, 베트남), 물야나(Mulyana, 인도네시아), 라일라 판친웨이(Laila Chin-Hui Fan, 대만), 첸첸유(Chen Chen Yu, 대만), 커진위엔(KE Chin-Yuan, 대만), 유지수(YOO JISU KLAIRE, 미국)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이퀄리브리엄 홈페이지



일상첨화 日常添畫

Shining on your days

전시내용 한국 및 서아시아 20세기 대표 근현대 거장 회화 전시

장르 회화

개요 2023 ACC 아시아 네트워크 《일상첨화》는 20세기 한국과 서아시아(시리아, 레바논)를 대표하는 총 6인작가의 예술적 궤적을 같은 연대 안에서 바라본다. 한국, 시리아, 레바논은 20세기 초반 식민지 역사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예술가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통해 프랑스에서 넘어온 서양미술을 접했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 위임통치령 아래 유럽의 미술 경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접한다. 전시는 20세기 제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동·서아시아 예술가들이 서양의 다양한 화풍을 실험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한 작품을 살펴본다. 아시아 대륙 양 극단에서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고유 기후, 풍토, 문화 등에서 서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은 여행을 떠나듯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참여 작가/팀(6)

국내(4) : 김환기, 오지호, 임직순, 천경자

국외(2) : 아민 엘 바샤, 파테 무다레스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각 소장처 대여 협의 필요



일상첨화 日常添畫
홈페이지

좀비 주의

Attention! Zombies

전시내용 <좀비 주의>는 좀비를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동시대미술 전시로 좀비의 배경인 디스토피아와 좀비의 사회문화적 상징성에 주목하는 전시

개요 동시대 아시아 주제 연구 기반의 기획전 ACC 콘텍스트 <좀비 주의>는 좀비의 상징성을 고찰한 전시이다. 20세기 초 서구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좀비는 그 모습을 변모해가며 21세기 한국 영상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며 등장한 ‘오늘날의 괴물’ 좀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좀비 주의>는 좀비를 대중문화 기획의 결과물을 넘어선, 한 시대가 품고 있는 시간성과 지역성을 흡수한 동시대의 상징으로 재해석한다. 전시는 1부 <아시아-좀비 연대기>, 2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동시대 아시아 주제 연구 결과로 1920년대부터 최근의 좀비물을 집대성한 연대기이다. 2부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미술가 10인/팀의 14작품으로 구성되어 좀비라는 상징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사, 욕망, 공포, 혼돈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소개한다.

장르 회화, 설치미술, 영상, 뉴미디어 등

참여 작가/팀(11)

국내 (8) : 강보라, 김봉수, 문소현, 박성준, 방정아, 여선구, 유소영, 정명우
국외 (3) : 황 치웨이(CHUANG Chih-Wei, 대만), 후지이 히카루(Fujii Hikaru, 일본), BCL/조지 트렘멜 (BCL/GeorgTremmel, 일본)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좀비 주의 홈페이지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Posthuman: Story Telling for Earthly Survival

전시내용 지난 팬데믹과 인류세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인간과 기계, 비인간 주체들 간의 공존과 연대를 꿈꾸는 포스트 휴먼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전시

개요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은 지난 2022년, 약4개월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당과의 프로덕션 제작과정을 거쳐 창제작한 작품들의 전시로, 팬데믹과 인류세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다. 인간과 동물, 기계의 결합, 그 경계는 무엇인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와 같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에서 벗어나 세상의 생명들과 함께 공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각자의 상상을 펼쳐낸다. 인간이 육체를 벗어나 디지털화된 형태, 지극히 정신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 출발한 인간과 기술을 연결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다루며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를 꿈꾼다. 빠르게 진화하는 바이오 기술과 함께 감각과 신체를 변형하고 인간의 신체, 생물, 비인간은 그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과 비인간, 잡종, 혼종, 다양한 존재가 거주하는 새로운 동맹을 제안한다.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연대와 관계를 맺으며 인류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열린 미래를 상상해 본다. 전시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지구적 공존과 연대를 촉구하고, 도래할 시간을 꿈꾸는 우리에게 공-산의 세계로 나아가는 포스트 휴먼의 실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은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이 공존하는 시대의 윤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교감을 시도하는 미래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장르 융복합 미디어 아트, 영상, 설치, VR 등

참여 작가/팀(17)

국내 (9) : 가수정, 고보경, 소보람, 슬릿스코프, 이섬, 이인강, 제이에이치알, 주슬아, 채종혁
국외 (8) : 로드리고 마린 바리쎬노, 롬베라-썩, 브이앤 에이 앤 에이, 세일리시 비알, 우링상, 원 포인트 아, 코린스키/서, 크리스티안 딘커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환영의 미로>(우링상) 연령 제한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홍보영상 / 홈페이지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Listening for the Voice of "TEUM"

전시내용 '틈'을 주제로 열린 공간의 매개적 특성을 활용한 전시

개요 2023 ACC 공모 전시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극장과 전시관을 잇는 예술극장 로비에 위치한 오픈홀의 매개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획되었다. 오픈홀은 주로 공연을 관람하기 전 대기하거나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나, 공연일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는 틈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전시관 대신 열린 공간인 오픈홀에 작품을 설치한다. 이로써 예술극장과 전시관을 연결하는 사이 공간으로서의 오픈홀의 가능성과 틈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에 2023년 2월, '틈'을 주제로 작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은정, 유지원 작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두 작가의 작품은 틈의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시관이라는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난 두 작가의 작품은 틈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두 작가의 작품에 틈을 내어주어 보길 권한다. 현재를 살아가며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은 없는지, 무언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틈을 마련해줄 것이다.



장르 설치

참여 작가/팀(2)

국내(2) : 유지원, 이은정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특이사항 : 모든 작품은 촉감을 느낄 정도로 만질 수 있음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홈페이지 / 작가인터뷰

포스트휴먼 앙상블

Posthuman Ensemble

전시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주체성과 포스트휴먼의 덕목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스트휴먼 담론을 중심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개요 탈인간중심주의를 통해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체성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려는 흐름에 동참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의 상황에서 '포스트휴먼'이 가져야할 미덕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번 전시는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간헐적으로 몇몇 작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다양한 비인간의 존재들에 주목한다. 2021년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간과 인간이 네트워크로 초연결되는 상황'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뉴노멀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다. 더 이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반격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인간은 자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앙상블'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자 하며, '번역'이란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는 두 관계의 소통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는 작가들의 모습에 집중한다.

장르 비디오 영상, 융복합 미디어아트, 설치, 회화 등

참여 작가/팀(14)

※ 최종 전시 작품은 대상기관 및 작가와의 협의 후 확정

국내(10) : 김제민, 이경하, 김설아, 황문정, 김태연, 양희아, 장전프로젝트(장준영 & 전지윤), 이스트허그(EASThug), 천영환, 조은우

국외(4)

루카스 실라버스(Lugas Syllabus, 인도네시아), 레나 부이(Lêna Bui, 베트남), 로버트 자오 런훤(Robert Zhao Renhui, 싱가포르), 페이 잉 린(Pei-Ying Lin, 대만/네덜란드)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포스트휴먼 앙상블 홈페이지

하늬풍경

The View of Hanui

전시내용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는 전시

개요 2023 ACC 야외전시 <하늬풍경>은 문화전당의 야외공간을 원경, 중경, 근경이 공존하는 한 폭의 그림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다층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하늬풍경>은 무더운 여름철 불어오는 서늘하고 건조한 서쪽 바람인 하늬바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촉각적 감각을 시각적으로 확장해 기후위기를 당면한 동시대인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풍경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1부 '원경: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드리프트 콜렉티브, 이이남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풍경을 소방도로에 덧입혀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2부 '중경: 인간에 의해 변해가는 풍경'은 박훈규+이선경, 서울익스프레스, 스튜디오 1750, 평지아청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개입으로 자연이 변해가며 생겨난 풍경을 재해석한다.

3부 '근경: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풍경'은 김하늘, 박천강, 김남주+지강일, 삶것, 한석현의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대의 방식을 확인하고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장르 설치, 영상(맵핑 프로젝션, 미디어큐브)

참여 작가/팀(11)

국내(9) : 김남주+지강일, 김하늘, 박천강(HAPSA), 박훈규+이선경, 삶것, 서울익스프레스, 스튜디오1750, 이이남, 한석현

국외(2) : 드리프트 콜렉티브, 평지아청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하늬풍경 홈페이지



행성공명

Planetary

전시내용 '듣기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 창-제작한 레지던시의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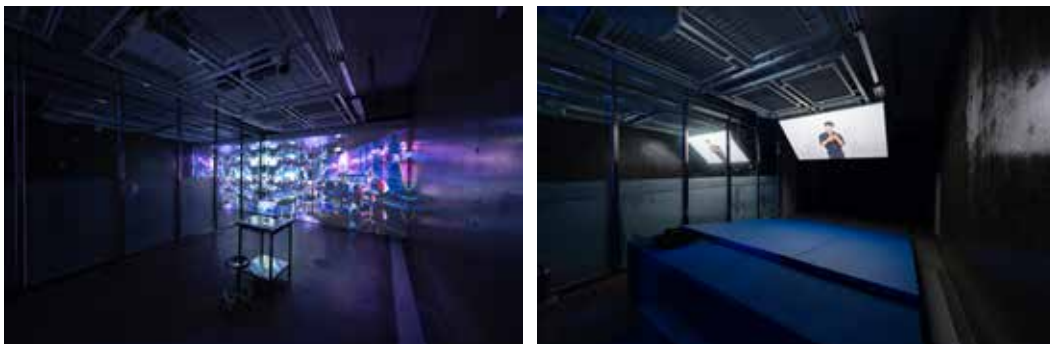
개요 우주 미개척지, 우주 식민지 등 대체 지구를 찾는 지구인들의 갈망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1928년에 연재된 SF 소설 <우주의 종달새>는 태양계 밖으로 진출하는 지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구를 끝없이 소비하고 이제 폐기하고자 했던 인류는 최근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이 행성의 권위를 복원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비-인간 개체들은 이제야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2023 ACC 레지던시 결과발표전 <행성공명>은 이 행성에서의 공존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그 어떤 예술 장르와 다르게, 소리 예술에서는 발화하고 듣는 행위 자체가 예술의 내용으로 연결된다. 소리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타자를 향한 적극적 소통의 의지로서 공기 중에 뿌려지고, 다른 이에게 가서 닿는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듣고, 연결된다. 공명(共鳴), 울림 등의 아시아의 전통적인 개념들은 이미 우리가 소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그것이 만들어 내는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음을 보여준다. 여기 2023년 ACC 레지던시의 결과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들은 두렵고 막연한 현실과 미래를 예술을 통해 바라본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문들,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기계만 남은 세계, 그것은 때로 새로운 차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된다. 정상/비정상의 기준을 지우고, 오늘 수행하는 노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이 정다운 감나무 그늘 밑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 어떤 도구로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인다면 이 각자의 소리는 지구를 울리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라 상상한다.

장르 융복합 미디어 아트, 영상, 설치, VR 등

참여 작가/팀(8)

국내(5) : 김준, 염인화, 이현민, 정아람, 정혜진
국외(3) : 수진 배 & 요나탄 렘케, 매튜 강골드, 조지 히라오카 클로크



전시 투어 세부사항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전시관람 연령 8세 이상)

전시장 규모 : 대상 기관의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 선정

설치 및 철수 일정 : 전시장 공간조성, 작품 설치를 위해 본 전시기간 전후로 최소 2~3주 준비 및 철수 기간 필요

- 예산 및 역할 분담은 협의하여 확정
- ※ 전시 순회 및 협력 제안(안) 제공
- 전시 제목, 주제를 유지하고 참여 작가는 공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행성공명
홍보영상 / 홈페이지



ASIA CULTURE CENTER

피리
리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Ddös Pöddik(a.k.a. How to Improve the World)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은 '듣기'에 관한 영화이다. 사운드 중심의 이 작품은 베트남의 중앙고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기독교화, 식민화, 전쟁, 그리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겪은 땅을 배경으로 원주민들의 소리와 음성, 그리고 음악을 전경에 세운다. 또한 영화는 감독과 열여섯 살 딸 사이의 시각적, 청각적 기억들에 대한 대화들로 만들어낸 에세이 영화다. 감독의 전작인 <판두랑가(Panduranga)>와 <5번째 시네마(Fifth Cinema)>에 이은 원주민 문화 3부작의 완결편이다.

제작연도 2021년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베트남, 한국
러닝타임 45분 42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color+b&w
감독 응우옌 트린 티



스틸 사이드

El lado quieto(The Still Side)

영화는 비위진 문명의 징표들을 관찰하며 황폐한 풍경 속을 돌아다닌다. 해양생명체들이 벽화에, 그리고 건축적 장식의 형태로 표현돼 있다. 돌고래 한 마리가 기쁘게 공중에 발이 묶인 채 돌로 변해 있다. 바다 속의 끊임없는 생명이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반대편 세상에서 정지상태와 침묵, 견고함을 유지한다. 인간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두고 간 건축공간들을 다양한 생명체들이 채운다. 마치 이런 공백 속에서 관광의 건축과 인프라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만 같다. 한때 수족관과 워터슬라이드에 물을 대주던 수도관들은 이제 음을 들이쉬고 내뿜는다. 한때 고급스러웠던 호텔의 커튼은 바다의 리듬을 따라 춤을 춘다. 감독들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검색을 통해 관광 속 유명들의 의미를 찾고 미래의 여러 생명체들을 상상해냈다. 제작 기간 동안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영화는 우리가 기억하는 경제 재난의 대참사 이후의 투사일 수도 있다. 또한 발전과 자유의 거짓 약속들을 경험한 세대로서 카팔루코 섬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련성, 즉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붕괴와 필리핀 출신의 이미지들의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이 내재되어 있다.

제작연도 2021년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필리핀, 아르헨티나, 한국
러닝타임 54분 35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color
감독 미코 레베르자, 캐롤리나 푸질리어



시대착오적 연대가: 아시아 안팎의 항해

Anachronic Chronicle: A Voyage through Inside-Out Asia

영화는 대부분의 내러티브가 원격 오디오 대화로 이루어진 에세이 형식의 작품이다. 총 네 개의 챗터로 구성된 영상은 각 챗터 별로 다루는 대상은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개의 언어로 된 음성 내러티브들과 움직이는 이미지들,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가 섞인 이 영상은 주로 두 감독의 가족들이 1990년대에 만들었던 홈 비디오들로 만들어졌으며, 군데군데에 한 홍콩인 가족이 1960년대에 촬영한 홈 비디오들이 등장한다. 영화는 동아시아의 가족들이 아마추어 촬영 장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며, 나아가 이주와 여행, 성장,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제작연도 2021년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홍콩, 일본, 한국
러닝타임 104분 20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color
감독 판루, 아라키 유



선유후부가

Seon-yu-hu-bu-gah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고 영화 외부에서, 우리는 각각 그 시간들이 동일하게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 무빙이미지의 모든 순간을 1분, 또는 1초로 기계적으로 자르면 각 부분의 시간은 서로 동일한 무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선유후부가설화’는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썬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유래된 이항세계 설화이다.

영화는 일정한 러닝타임을 갖고 관객은 그 시간만큼 그것에 구속되기 마련이지만 영화 내에 흐르는 물량적인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전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흐르는 물’에서 시작하여 ‘바라보는 불’로 끝나는 이 영화는 무빙이미지가 재생되는 공간을 ‘이항세계’로 정의하고 그 속의 세계와 그것이 재생되는 공간, 영화와 현실의 공간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시간의 상대적인 면을 드러낸다.

제작연도 2021년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러닝타임 12분 23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b&w
감독 김민정



찬란함의 무덤

Cemetery Of Splendour

이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영화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작품연보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과 사랑, 꿈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정교한 미로로 펼쳐진다. 깊어지는 수면처럼. 태국 북동부에 있는 쿤캔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고향이자, 2015년에 그가 펼치는 새로운 영화적 상상의 현장이다. 수면병에 빠진 병사와 그를 간호하는 주부가 만나고, 그 충돌은 여러 층위의 현실을 빚어내는 제식적 단초가 된다. 위라세타쿤의 부모가 의사로 근무했던 병원, 끝없이 질병에 관한 영화들을 보여줬던 학교 등 사적인 기억 속의 장소들은 그가 꾸는 영화라는 꿈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직조해낸다. 그리고 두 상상적 인물들은 그 속에 숨는다.

다층적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화적 미로는 작가 자신의 무의식적 거울이며 동시에 태국의 역사적 단상이기도 하다. 몽상과 정치는 서로를 횡단하고 투영한다. 두 남녀가 서로의 잠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듯. “나는 이 영화를 열병에 걸린 태국에 대한 반추로서 만든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호수 등 기생충처럼 나를 점령한 기억 속의 장소들에 대한 사적인 초상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현실의 질병을 차단하고 영속의 꿈속에 숨는다.”

제작연도 2015년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노르웨이
러닝타임 120분 21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color
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수상이력 2016 빌드로슈영화제 감독상
 2015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최우수작품상



ASIA CULTURE CENTER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Great Heritage, Central Asia

작품소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비슷한 듯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줄거리

1부 '이스파라의 봄'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아시아 12개 나라가 즐기는 봄의
축제이자 새로운 날(new day, 설날)을 의미하는 나브루즈.
타지키스탄 이스파라 지역에 사는 소녀의 눈으로
나브루즈를 소개한다.

2부 '노래하라, 삶을 노래하라'

중앙아시아 4개국의 전통음악과 구전 서사시를 조명한다.

3부 '유목, 천년의 지혜'

유목문화권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목동들의
삶을 소개하며 양의 털로 만든 펠트, 이동집 유르트 제작에
관한 전통 지식 등 유목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살펴본다.

방송일자 2017. 9. 28. ~ 2017. 10. 19.

등급 전체 등급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닝타임 총 3부, 각 48분

배급 EBS

제작진 책임프로듀서 김광호

연출 박치대

연구조사 심효윤

수상이력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홍보 영상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1

Great Heritage, Southeast Asia 1

작품소개

중앙아시아에 이은 위대한 유산 두 번째 시리즈로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줄거리

1부 '인레호수, 대를 이어온 전통의 삶'

미얀마 인레호수에 정착한 인따족의 수상생활을 담았다.
어로 활동, 수경재배 그리고 무분별한 모터보트 사용과
대량 공산품 수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공예문화를
조명한다.

2부 '이푸가오, 고산에 꽃핀 농경문화'

필리핀 코르디예라(Cordillera) 지역의 계단식 논과
그 곳에서 천 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푸가오족의
농경의례, 줄다리기를 기록한다.

3부 '예술, 학살의 기억을 지우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세 명의
문화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방송일자 2019. 7. 15. ~ 2019. 7. 17.

등급 전체 등급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러닝타임 총 3부, 각 48분

배급 EBS

제작진 책임프로듀서 문동현

연출 박치대·박민주

연구조사 심효윤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1
홍보 영상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2

Great Heritage, Southeast Asia 2

작품소개

전통공예, 공예, 농경의례, 공연예술 등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3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줄거리

1부 '태국 치앙마이, 전통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찾다'

오랜 전통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치앙마이의 노력을 찾아본다. 목화공동체 그룹의 천연재료
염색 과정, 새로운 관광모델이 된 우산 공예, 전통칠기
라크웨어를 매개로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부 '천년을 이어온 가면극, 캄보디아 르콘콜'

캄보디아의 음악, 춤, 의상, 종교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가면극, 르콘콜을 만난다. 공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3부 '물 위에 비친 농민들의 삶, 베트남 수상인형극'

수확의 과정, 고기잡이, 물싸움 등 농민들의 삶을
다채롭게 담은 베트남의 수상인형극. 1000년 전부터
이어져온 베트남 전통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방송일자 2022. 11. 28. ~ 2022. 11. 30.

등급 전체 등급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러닝타임 총 3부, 각 48분

배급 EBS

제작진 연출 박치대·권성윤
감수 하을란
연구조사 심효윤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2
홍보 영상



ASIA CULTURE CENTER

미디어아트영상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The Woman Carrying Rubber Basin On Her Head

량즈워+사라 워의 작품에는 도시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아시아문화아카이브 컬렉션 중 하나인 김기찬(1938~2005)의 사진을 활용했다. 1970년 서울역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네 명의 아주머니가 머리에 대야를 이고 걸어가고 있다. 이 몸짓은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거리를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도시의 구조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몸의 움직임을 예시한다. 도시에 대한 작가들의 구조적 분석은 비단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여성으로서 인물의 삶에서 출발하는 사회·문화적 체제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간다. 사진 속 인물의 몸짓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즈음 태어난 또 다른 여성에 의해 재상연되며, 두 보행자 사이에 일어나는 세대의 간극을 뛰어넘는 만남과 대화를 보여준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9분 10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원본 사진 김기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 제공
창작진 량즈워+사라 워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VR 전시



고사리 걸음

The Trace of Ferns

“자신의 역사를 복제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들이 있다. 시간을 고요히 훑으며 음지에 녹광을 내비치는 자! 같은 행성의 생명체이면서도 인류 이전부터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양치식물을 향한 경외심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붉은 잎맥과 푸른 혈관이 지나간 표피, 흐르는 햇빛을 마시고 내뿜는 호흡.... 양치식물은 인류의 유전자가 겪은 적 없는 그들의 하늘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전령이다. 빛의 방향, 습도, 천적의 모습까지 함축하고 있는 모습은 시대의 알고리즘을 반영한 완성된 개체이자 당시의 유전 정보를 응축한 포자이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생체 메커니즘을 경제적으로 수정하는 식물들은 ‘자연’의 대명사인 동시에 냉정하고 단호한 ‘프로그램’과도 다를 바 없다.” 작가노트
 고사리의 자기복제성과 무성아 번식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작가는 고사리의 형태적 특질을 3D 프로그램이라는 가상의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인간 몸짓의 궤적을 입혀 발아시킨다. 작품에서 인간은 포자를 위한 배지가 되고,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생물종이 가진 각기 다른 타임라인의 충돌은 하이브리드를 낳는다. 이것은 인류세 이후 대지에 새롭게 나타날 생명체에 대한 배양 실험이자, 종의 경계와 역사가 모호해진 세계에 대한 관찰이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2분 25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을지로



고사리 걸음 미리보기



공생도시

Symbiotic do-si

작품은 메콩강과 공생해온 도시를 그린다.
 메콩 5국의 수도 항공사진을 통해 도시구조를 단서와
 동기로 삼은 상상의 시공간을 그려냈다.
 항공사진과 2차원으로 생성한 패턴을 조합하고, 이를
 3차원으로 변환하여 생동하는 시공간의 춤을 가상으로
 구현했다.
 오늘날의 지도에는 오랜 공생도시의 춤이 끊겨 있다.
 아시아의 지도에는 근대를 관통하며 좀 더 고집스러운
 인류의 흔적이 남았다. 자연을 압도하는 도시기술은
 변덕스런 천재지변의 불안을 소거하고 인류의 영속적인
 안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9분 59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대천



공생도시
미리보기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Now You See Me

SNS발달로 작품의 의미를 음미하기 보다는 인증 사진이라는
 2차원의 네모난 공간 속에 그 의미를 가둬버린다.
 이 작품은 그 너머에 대한 이야기이다.
 벽은 단절이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진다면 어떨까?
 벽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 있을까?
 그 너머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의 영감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합쳐져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확장시킨다.
 그 너머에서의 시간은 중요치 않다.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시점들이 뒤섞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에 이른다.
 더 이상의 벽은 없다. 오직 그 너머만 존재할 뿐이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분 45초
제작형식 4채널비디오,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창작진 프롬(이수진)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미리보기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A Map of Written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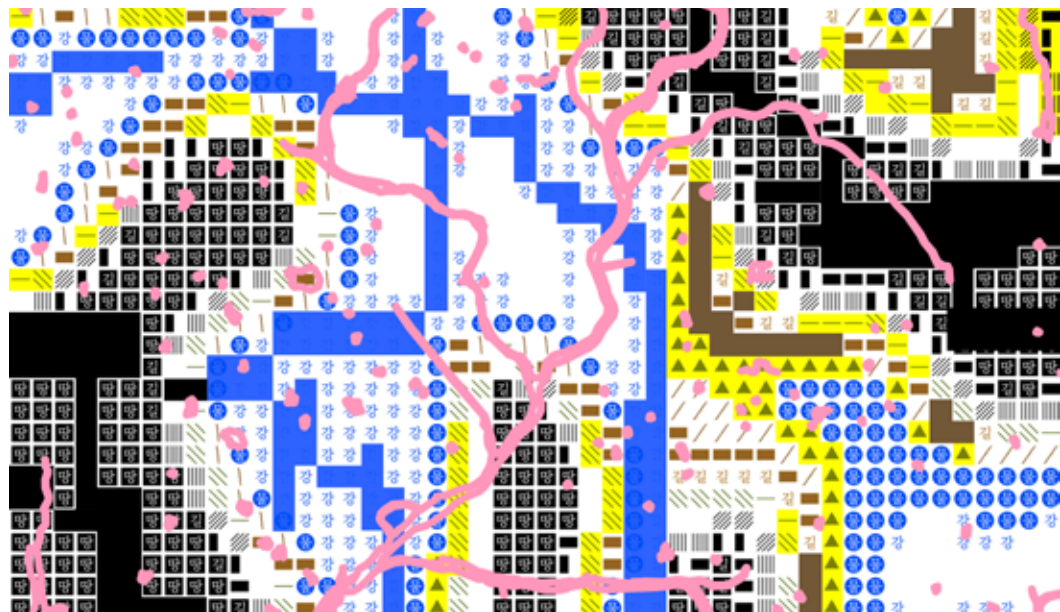
박고은은 도시와 건축에 관심을 두고 연구에 기반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짓기 위해 붙인 이름들은 어디서 왔을까?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에서 작가는 사라지거나 잊힌, 광주의 오래된 땅과 길의 이름을 복원한다. 옛사람들이 무등산 서석대를 보고 광주를 ‘돌이 물처럼 흘러내린 곳’이라는 의미의 ‘무돌(물과 돌의 합성어)’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고유지명의 경우 주변의 풍경을 언어로 변환한 사례가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 고유지명들은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되며 오늘날 실제 말소리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작가는 잊힌 땅과 길 이름을 수집하고 이제는 사라진 옛 이름들을 지도 좌표 위에 되살린다. 낯선 단어가 표시된 오브제를 관객이 옮겨놓을 때마다 스크린 위에는 오늘날 광주 시민들에게조차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를 이름에 담긴 과거의 흔적과 이야기가 담긴 지도가 나타난다. 지명에 담긴 지역과 사회의 변화상을 다채로운 선과 면으로 옮긴 지도 위를 산보하다 보면 도시에 얽힌 풍부한 이야기에 접속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견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년
국가 한국
제작형식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가변크기
창작진 박고은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VR 전시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

Long Shape Earth, Pictogram Jungle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두 가지의 영상으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 작업으로, 바닥과 벽을 ‘지구’와 ‘정글’로 치환한다. 이조흠은 바닥면 ‘지구’에는 삶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벽면 ‘정글’에는 자연 속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담아, 자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연이라는 두 가지 시점을 교차시킨다. 작가는 ‘정글’에는 개, 고양이처럼 익숙한 개체부터 산양, 표범, 코뿔소, 피라냐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개체를 동시에 나열하고, 화면 속에서 확대·축소한다. 각 개체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힌디어로 ‘살아있다’고 외치며 각각의 캐릭터로서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작가는 ‘살아있다’는 단어와 그 의미를 조명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있고 살아가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주변에 생성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라이브 링’을 차용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바닥면 ‘지구’를 거닐며 ‘라이브 링’에 들어가 함께 살아있음을 재확인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조흠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 미리보기



끝섬(VER.2)

End Island (Ver.2)

<끝섬(VER.2)>은 멸종된 동물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인간 존재인 작가는 비인간 존재가 '되기'를 상상하며 자신의 신체를 멸종 동물의 신체와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이 존재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각하는지를 느껴본다. 외딴 섬은 자연이 만든 감옥이다. 넘을 수 없는 단조로운 바다의 벽에 둘러싸인 그곳은 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끝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이미 멸종된 동물들—모리셔스 파랑비둘기, 파란영양, 돼지발반디쿠트, 모아, 와이마누앵권, 스텔라바다소, 여행비둘기, 독도강치, 판타섬땅거북, 아즈에로거미원숭이—과 반딧불이 같은 멸종 위기종, 눈알해파리라는 상상의 생물이 거주한다. 인간 세계의 시스템을 구동·유지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가 버려진 사물들도 곳곳에 등장한다. 이들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자화된 섬 공간을 공유 지대로 삼아 머무르며 각기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섬과 세계를 인식한다. 작가는 이들이 감각하는 시·공간을 상상하고 하이브리드가 되어보려 한다. 섬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들은 서로 눈을 맞추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다른 살아있는 세계들을 인식하는 순간에 짧게 교차한다. 화면은 한 존재의 시선에서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릴레이처럼 연결되고, 땅 아래 웅홀과 같은 구멍으로 미끄러지며 감각적, 심리적 공간을 통과한다. 결국 섬 위로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모두가 물속에 잠기며 끝이 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8분 41초
제작형식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정혜정



끝섬(VER.2) 미리보기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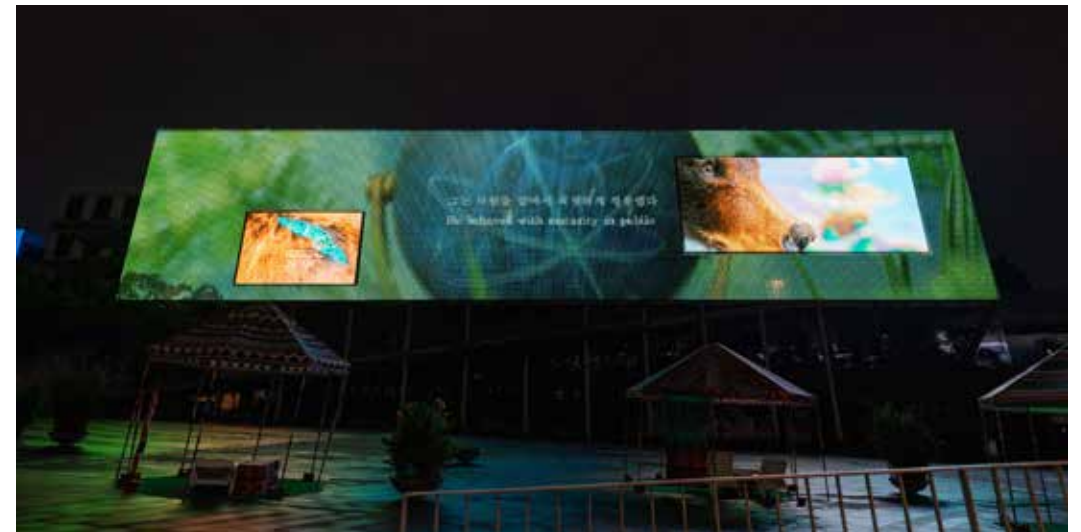
He Left on the Very Day I Came Back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영생과 미식, 그리고 과시를 위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희생되어 왔다. 어떤 종의 특정 부위가 갖는 효능에 관한 그릇된 믿음은 엉터리 신화를 만들어 냈고, 지금도 그 효능을 맹신하는 많은 이들은 남몰래 그러한 중들을 소비한다.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신화가 된 곰에 관한 이야기다. 곰의 담즙이나 발바닥은 예로부터 정력과 미식 재료로 유명해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곰의 머리와 가죽은 부잣집 한편에 트로피가 되어 놓여있다.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잔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초현실적인 우화 형식의 영상을 통해 희극적으로 비틀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그리고 지구가 마주하고 있는 불안과 겹쳐보고자 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스톱 모션,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장종완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 미리보기



뉴 월드? II

New World? II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며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이하 NFT)의 이면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말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NFT는 예술계에서도 디지털 예술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많은 작가에게 새로운 탐색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들은 NFT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다.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은 가상자산의 채굴, NFT 인증 작업 등을 위해 고급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때 과열된 네트워크는 정전을 일으킬 정도의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자 폐기물을 생산하는 등 환경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채굴자와 NFT 생산자는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작품은 NFT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오픈씨(OpenSea) 데이터와 컴퓨터 부품 사진을 활용하여 NFT가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를 다룬다. 현재 디지털 자산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거대한 파도로 표현한 작품의 이미지는 바닷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데이터 시각화 영상,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디지털 세로토닌



뉴 월드? II
미리보기



둘러보기

Browsing

<둘러보기>는 콜렉티브 새로운 질서 그 후가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웹 생태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실천적 태도를 물리적 공간에 적용해 선보이는 무빙 이미징이다. 작가들은 시선이나 눈높이를 달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본 전시관을 걸으며 포착한 구석, 모서리, 틈과 같은 12개의 요소에 주목한다. 이는 보행자가 무심코 지나쳤던 대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경험을 상기하며, 웹상의 사용자 역시 거대 플랫폼이 구축한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보다 자율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반복재생
제작형식 12채널 영상, 컬러, 무음, 반복재생
창작진 새로운 질서 그 후



둘러보기
VR 전시



루덴스토피아

Ludenstopia

작품은 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모르는 인공지능이 이해한 두 공간과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상상해 낸 제3의 공간을 재배치해 보여준다. 개인과 사회, 현실과 상상, 생존과 유희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곳을 우리는 루덴스토피아 - 유희적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 의지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해석한 공간의 의미를 제시하며 물리적 공간, 그리고 괴리라는 개념적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공간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괄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4분 36초
제작형식 다채널비디오,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창작진 슬릿스코프(김제민, 김근형)



루덴스토피아
미리보기

레이온 공장 달리기

Invisible Factory Run Project- Rayon Plant Run

김재민이는 공장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달린다. 본래 사냥감을 쫓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원초적 행위였던 달리기는 오늘날 도시민들의 건강 증진 활동 혹은 취미 활동으로 변모했다. <레이온 공장 달리기>에서 작가는 한국·중국·일본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여행’ 중인 공장의 자취를 뒤쫓으며, 공업지대의 이동을 중심으로 현대 도시의 탄생과 팽창, 오늘날의 소비 사회를 살펴본다. 레이온(인견)은 양복 안감, 여성 의류, 잠옷과 침구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섬유의 한 종류다. 동아시아에서 레이온은 20세기 초 일본 도레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1964년 생산 설비를 국내에 들여와 남양주 지역에서 생산했으며, 1993년 중국의 한 화학섬유 공사에 매각되었고, 2000년대 초 자취를 감추었다. 이황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레이온 생산 부지는 점점 변두리로 옮겨가고 옛 부지에는 자못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채색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지만, 레이온도 사라졌을까? 비스코스, 인견, 모달 등 이름만 달리한 레이온 제품은 친환경 라벨을 달고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레이온 소재의 ‘그린 패션’을 착용하고, 노동과 질병의 흔적이라고는 말끔히 세탁된 공장의 이동 동선을 따라 달리는 작가는 도시 거주자이자 소비자로서 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 혁혁대는 숨소리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로서의 달리기와 ‘합’한 취미로서의 ‘러닝(running)’, 숨 가쁜 노동과 도취감(high)에 찬 소비라는 이질적인 양상을 꿰뚫고 지나가며, 도시의 ‘승리’를 기념한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12분 30초
제작형식 아카이브,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가변크기
창작진 김재민이



레이온 공장 달리기
VR 전시



마뚝의 날: 풍수토니 필의 일주일

Groundhog Day: A Week of Punxsutawney Ph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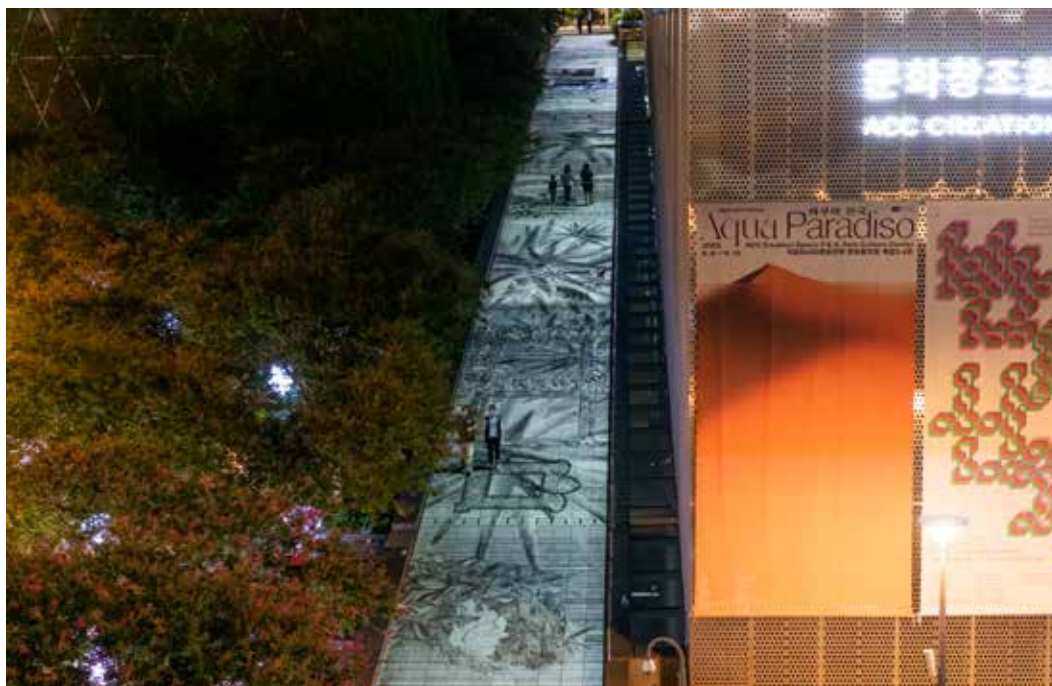
작가는 자연과 사람, 책과 영화 사이를 오가며 직·간접적으로 경험 가능한 모든 순간들로부터, 즉 역사와 현재를 둘러보며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가능하고 탐색한다. '풍수토니'는 국내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작가 나름의 방식대로 명명한 것이다. 그는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산다. 작가는 풍수토니처럼 매일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매일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쌓여가는 생각, 정리되지 않은 채 이미지화된 언어들, 숙명처럼 여기는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발견하는 가벼움, 고통, 미련함, 반짝이는 순간, 단순함, 아름다움, 궁극의 송고함을, 숙명과도 같은 작업자의 태도를 작업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2분 25초
제작형식 디지털 콜라주, 애니메이션, 사운드
창작진 최지이



마뚝의 날: 풍수토니 필의 일주일
미리보기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인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의 행동을 다시 인간의 신체에 대입하였을 때 이는 기계의 움직임인가 인간의 움직임인가? 기계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하고 패턴을 만들어서 다시 인간의 몸에 입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계 VS. 인간이라는 대결구도가 아닌 '사이에 있는 것'에서 기술 문명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10분 57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전보경



머신 러닝
미리보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Everything is Conn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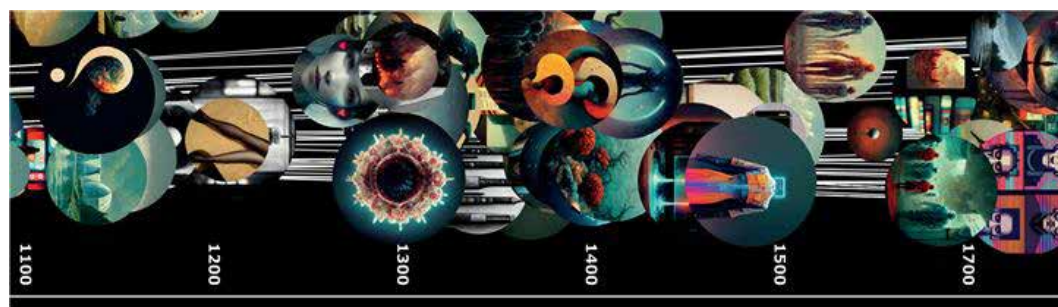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작품의 제목이자 메시지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30억 년 전,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단세포 유기체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당시 생존했던 유기체 중 남세균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꿨다. 남세균 덕분에 9억 년 뒤 지구 대기의 산소가 증가했고 오존층이 형성됐고, 덕분에 지구에는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다. 미미한 존재감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생명체인 남세균은 마침내 인간을 포함한 우리 생태계의 탄생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가는 남세균과 같은 작은 유기체가 지구의 환경 변화에 일조했듯이, 인간의 선택과 실천이 지구 환경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작품은 맵핑 프로젝션, 앵아트, 사운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영상은 빅뱅, 우주진화론, 미래 지구의 모습을 그린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들은 4억5천만 년 전부터 2060년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바닥면을 구성한다. 또 영상은 10개의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앵 아트로 안내하는데, 앱 안에서 우리는 작가와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미지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 미래 지구의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동시에 현대 음악의 근간이 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수록곡을 샘플링한 사운드가 공간을 채운다. 작가는 현재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기술을 이용해 자연을 대체할 것인지, 일련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6분
제작형식 웹 사이트 및 영상,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디지털 세로토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미리보기



바벨×바벨 II

Babel × Babel II

환경 위기로 말미암아 인류가 곧 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는 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현실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피로감으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위기는 현실이다. <바벨×바벨 II>은 자연을 대하는 현대인의 오만한 태도가 돌이키지 못할 기후·환경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는 참여형 웹아트 작품이다. 관객이 쓰레기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벨×바벨 II>은 현대인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며 환경 위기를 대화의 중심으로 소환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바벨탑처럼 거대한 쓰레기 탑을 쌓는 과정을 통해 관객은 환경위기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된다. 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남겨진 음식물, 불필요하게 구입한 공산품, 스마트폰으로 생산·재생산하는 무의미한 이미지까지, 관객이 던지는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재료가 되어 바벨탑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또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이 대화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이 '배출'한 모든 것은 여과 없이 묵묵히 쌓이고 기록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웹기반 참여형 디지털 아트, 컬러, 사운드
창작진 AAB(석재원, 김민재, 구자은)



바벨×바벨 II
미리보기



부식 풍경

Erosion Landscape

재개발이 확정되면 기존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은 끊어진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성찰을 위해 우리는 한 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품은 재개발로 인해 없어질 마을을 3D 스캔으로 아카이빙하고 재구성하여 그 결과물을 미래와 공유하는 작업이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2분 29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홍석진



부식 풍경
미리보기

불과 얼음의 노래 ver.ACC

How to make a Song with Opposite Value? ver.ACC

작품은 인류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익가치로 진행하여 온 삶의 방식의 반대 항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감성, 기운, 무의식, 은유법 등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기이한 세계에 대한 작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현재 전 지구적 자연 재앙의 위기 앞에, 현세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과연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공포 등의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동시대적 고민들을 경유하고 있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7분 21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수진



불과 얼음의 노래 ver.ACC
미리보기

사운드 월 / 사운드 슬로프

Sound Wall / Sound Slope

<사운드 월> 및 <사운드슬로프>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미디어파사드에서 관객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소리와 영상을 창작하는 참여형 미디어파사드 전시입니다. '사운드 월'은 넓이가 75m에 이르는 웅장한 미디어 월에서 한글의 기본 구성 요소인 점, 선, 면 같은 기하학적 형태가 분해되거나 재조합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반면, '사운드 슬로프'는 미디어큐브의 에스컬레이터 화면에 표현된 작품으로, 훈민정음의 기본 원칙인 원(하늘), 네모(땅), 세모(사람)가 문자로 변화하거나 다시 그 기본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끈이어 기본 도형들로 분해됩니다. 화면 상의 장애물과 충돌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소리를 발산해냅니다. 이번 전시에서 중심 소재로 사용된 한글은 단순히 글자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생성 원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친지나 친구들과 함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4글자의 문장으로 담아 미디어파사드에 전송하며, 이 과정에서 글자가 의미와 예술적 영감을 동시에 전달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관객들은 문자를 통해 때로는 친구를 놀리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전당의 미디어파사드는 예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공감의 창(窓)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실시간 관객참여형 설치작품
창작진 태싯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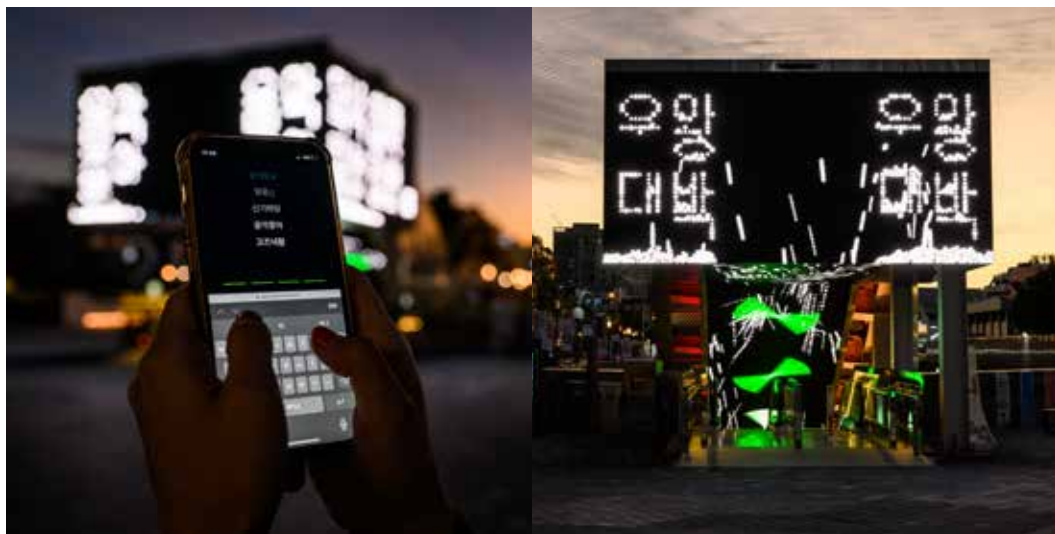
사운드 월 홈페이지



사운드 슬로프 미리보기



사운드 슬로프 홈페이지



아나객잔 : 화광

Ana Inn : Harvesting Light

아나객잔은 장소이고 거쳐지만 아시아에서 유럽, 우주로 열린 포탈이기도 하다. 아나객잔을 지키는 소녀 아나는 화광 작업자다. 동물과 사람을 새로운 에너지로 변전, 화광한다. 아나가 관장하는 것은 양자생물학과 이미지의 영역으로, 빛의 수확의 식물광합성을 사진합성과 중첩, 생태계와 역사지리, 디지털 이미지의 얽힘을 구현한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4분 48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소영, 이애림(스트링즈 1826)



9개의 지구 언어로 쓰인 인터스텔라 메시지

Interstellar Message written in
9 languages of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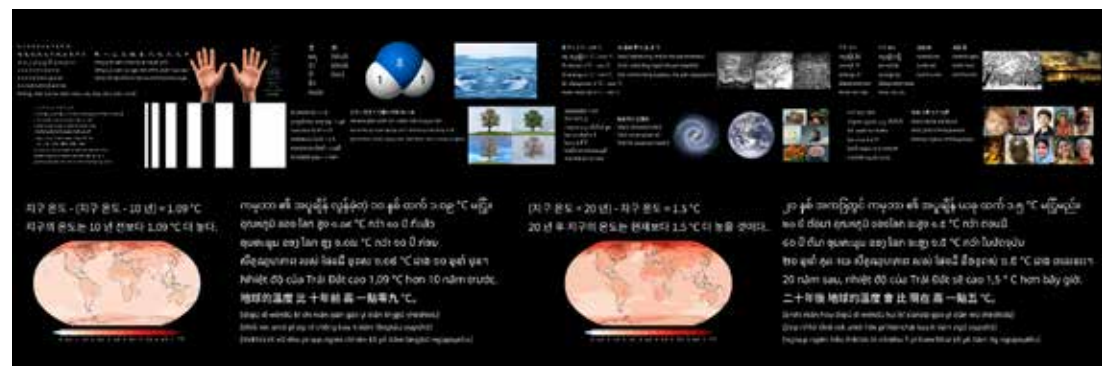
외계지성체와의 소통을 위해 인간의 언어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담은 인터스텔라 메시지이다. 특히 지구 언어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외된 세계의 언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현재를 우주에 알리고자 한다. 먼 우주를 향하는 인터스텔라 메시지는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하는 우주의 메아리이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15분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언해피서킷(Unhappy Circuit)

※ 본 작품은 2021년 <6개의 지구 언어로 쓰여진 인터스텔라 메시지>(원제)로 제작되었으며, 2022년 대만 C-LAB 전시를 통해 업데이트 되었다.



9개의 지구 언어로 쓰인
인터스텔라 메시지
미리보기



아름, 구름, 꿈

9, Cloud, Dream

조선 시대 국문 소설인 <구운몽>을 현대의 시각으로 각색하여, 텍스트를 바탕으로 3D애니메이션적인 시·공간적 해석을 더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각색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명령어(text prompt)로 삼고, 인공지능(Deep Learning)으로 구성한 영상 소설이다.

이 작업은 유, 불, 도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서술된 원문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현실과 꿈의 경계에 대하여 다양한 신경망의 작용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통해 재구성한다. 각 문장 속 텍스트를 영상과 음악의 파라미터로 적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생성기로 제작한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7분 30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조영각



아름, 구름, 꿈
미리보기



이별만상 - 여러 가지 안녕

Various Farewell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만 행복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남이 그랬던 것처럼 헤어짐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새로운 만남에서의 다양한 모습이 있듯 이별도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간을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각자 다양한 인연과 우연으로 만나고 헤어지게 된다.

‘이별만상’ 작품은 영상과 음악, 공간 향수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시각적 재미를 넘어 다채널 사운드로 표현되는 청각과 향수를 통한 후각까지 작품을 체험하는 공간적 경험을 오감을 통해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4채널비디오,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창작진 씨클(전민수)



이별만상 - 여러 가지 안녕
미리보기



입체 프레파라트

A Three-dimensional Preparat

<입체 프레파라트>는 원시 고사리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전개된 작업 <고사리 걸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ACC 미디어월에 투사된 유기적 존재에 또 다른 공간적 서사를 부여하여, <고사리 걸음>에서 배양한 유기체를 가상의 디지털 테라리움에 이식한다. 작가는 지하부와 지상부에 걸쳐 정보와 이미지가 방출되는 작품의 특징을 토양에 뿌리내려 성장하는 식물의 구조와 병치시킨다. 여기서 지하와 지상을 오가며 구조물을 체험하는 관객은 지상부에 위치한 유기체로 전달되는 영양 물질의 역할을 하게된다. 순환과 성장을 거듭 반복하며 진행되는 역사 위에서 인류와 자연이 공동체가 되어 이룩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 생태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을지로



입체 프레파라트
미리보기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Everything will be OK

Requiem aeternam dona eis
: Everything will be OK



작품은 아시아의 아픈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시작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이다.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진 국가 공권력 남용과 그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제작하였다. 모였다 흩어지는 아름다운 빛무리처럼, 아시아 민주화 운동과 국가 권력 희생자들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잊지 않고 기억하여,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과 관객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1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11분 58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Team Hitchcock A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Everything will be OK
미리보기

조립된 풍경화

A Prefabricated Scene

광주의 오래된 동물설화를 수집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무등산의 절경과 호랑이, 구렁이, 새, 말을 공간감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광주 향토자료 수집과 새로 창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로 대립하는 동물들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총 3장의 서사구조로 구성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몇 십 년을 거쳐 이어오는 설화 속 동물들의 성격과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사람과 사람 간의 원초적인 관계 형성을 빗대어 사회 구조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재정립하여 무등(無等)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상 속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분 40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문창환



조립된 풍경화
미리보기



지상지하

As Below, So Above

<지상지하(As Below, So Above)>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날, 만주와 소련 사이 최전방에 위치한 지하 요새에 남겨진 정토진중 본원사파의 군중 승려와 보급병의 대화를 담고 있다. 산과 도시를 가로질러 21km에 이르는 지하 요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졌다. 병사와 승려의 대화 주제는 소련군과의 대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금지된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미로 같은 지하 요새에서 어둠 속에 갇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견뎌야 한다. 바깥으로 나서는 일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소련의 폭격으로 인해 뚫린 천장에서는 바람소리만이 들려와 더 이상 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병사는 쉽사리 안온한 어둠 속에서 바깥으로 나설 수 없다. 어쩌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조차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깨비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폐쇄와 공포, 갑작스러운 개방이 야기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연결한다. 집단적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지 묻는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32분 27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리 카이 칭



지상지하
VR 전시



차원 너머

Beyond the Dimension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결코 2차원적이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Z축으로부터의 확장된 결과물과 같은 3차원적인 구조라고 본다. 2차원 평면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원근법을 통해 3차원적 움직임을 영상화하여 관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8분 7초
제작형식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현민



차원 너머
미리보기



카본 클럭 @ACC

Carbon Clock @ACC

<카본 클럭 @ACC>는 증강현실로 구현한 포털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디지털 세계에 진입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증강현실(AR) 앱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작업으로 구성된다. 현재와 미래, 현실과 가상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회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증강현실 앱에서 관객은 가상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10개의 질문을 만나게 된다. 질문에 대한 관객의 답을 통해 계산된 탄소 배출량은 가상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50년의 시간이 5분 만에 흐르며 작품 속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관객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50년 후의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상 세계에 남길 수 있다. 그 메시지들은 가상 세계의 바닥에 새겨지고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축적되어 세계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흐르고 나면 관객이 남긴 메시지만이 남아 세계를 떠돌게 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7분
제작형식 증강현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카입 × 이슬비 × 이지현



카본 클럭 @ACC
미리보기



화석이 될 수 없어

Can't Be a Fossil

<화석이 될 수 없어>는 인류가 만든 문명이 촉발한 미래의 생명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을 가진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인큐베이터를 개발하고, 동물들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생명을 이어가는 세계를 그린다. 인류세의 지표인 플라스틱이 화석으로 쌓여가고 인류의 끊임없는 개발에 지구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소멸·재생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구는 인류의 종말 덕분에 재생 능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질 연대의 시작을 암시한다.

인간은 발전과 파괴를 반복해 왔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곤 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과 같은 원자재 소비는 수질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고, 전기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결국 오염의 근원지만 바꾼 것처럼 말이다. 작가는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박탈당한 동물들의 모습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면서 지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회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년
국가 한국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임용현



화석이 될 수 없어
미리보기



ASIA CULTURE CENTER

공연

두 개의 눈

The Two Eye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판소리미디어극

창작진 무토, POST MNH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토, POST MNH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상부 셋업(LED&호이스트&키네틱) 1일
- 조명&레이저&음향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테크니컬리허설 1일
- 출연진 리허설 1일

화물

- LED 등 무대 상부 5톤 2대
- 조명&레이저 5톤 1대
- 음향 및 무대 1톤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5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8m



두 개의 눈
홍보 영상



효녀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일반적인 <심청가>와 달리, <두 개의 눈>에서는 '심학규'의 일대기를 다룬다. 20세에 안맹한 심학규가 딸을 얻음과 동시에 부인인 객씨를 해산병으로 잃게 되고, 어린 딸을 어찌지 못하다가 동네 부인들에게 젓동냥을 해가며 키워내는데, 심학규의 남다른 부성은 효녀 '청이'를 키워낸다. 눈먼 심봉사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인당수 제물로까지 팔려가는 심청의 이야기는, 마지막 심청과 심봉사의 재회,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전개된다. 기존 원안에서 가치관의 무게중심을 덜고, 관객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리를 바라보면서 심학규만의 로드무비를 만든다. 비주얼과 음악, 퍼포먼스를 통해 판소리의 비장미나 해학보다 평범한 범인으로서의 심봉사에 대한 연민으로, 보다 입체적인 이면을 만들어 관객의 심연을 울리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비비런

BBRUN

초연연도 2021년
장르 메타버스 체험공연
창작진 ㈜디아랩, 협력(피엘오티, 자이언트스텝)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디아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공연시간 회당 60분

투어인원
 공연장 규모에 따라 유동적

일정

- 셋업 및 음향·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공연 : LED고정구조물(높이 3m × 폭10m, 5,000kg미만), 영상 콘솔, 객석용의자 50개, 이동용 조명 스탠드, 조명 12기 및 콘솔, 음향스피커 4set, 무선마이크 및 콘솔

체험용 : 체험용 VR HMD 20대, 객석용의자 20개

게임용 : 게임용 VR HMD3대, 50인치 모니터3대, PC3대
 객석용의자 3개

공연장 규모

- 공연 : 약 200m²(60평)이상, 객석 포함
- 체험, 게임 : 약 130m²(40평)이상 *전시공간에 분산 설치 가능



비비런
 홍보 영상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 출발! 타이탄 지구 탐사대>는 고성오광대 탈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모티브로 사회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알리고자 4차 산업기술인 모션캡처, 페이스캡처, 확장현실(XR/VR)기술을 융합해서 제작된 실감콘텐츠 공연이다. 기존에 VR로만 체험 가능했던 콘텐츠에 XR스테이지와 실제 배우의 연기를 더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진 관객 참여형 공연!

인류가 지구를 떠나온지 오백년. 2990년 인류가 새롭게 정착한 별 타이탄. 생명체가 없는 지구를 타이탄 위성의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닥터 아매가 발견한 지구 생명체! 미래 재난과 파괴에 휩싸여 쓰레기 행성으로 변해버린 미래의 지구에는 각종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를 먹고 사는 비비와 그의 자식 비비런이 아직 남아있다. 과연 우리는 지구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자유결혼 - 영화 더빙쇼

Liberal Marriage - Film Dubbing Show

초연연도 2017년
장르 영화 더빙쇼
창작진 연출 임성재, 음악 임주신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좋은 친구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22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 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소품, 조명, 음향 2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7m × 높이 6m



자유결혼 - 영화 더빙쇼
 홍보 영상



국립극장 제1회 창작희곡 공모 당선작인 '자유결혼(하유상 作)'을 영화화시킨 <자유결혼(1958)>에 더빙 연기, 전문 악사들의 연주, 폴리 음향을 결합하여 실감나는 영화 더빙 공연을 만날 수 있다. 1950년대를 풍미한 최은희, 이미지, 조미령이 출연한 영화 <자유결혼(감독: 이병일)>과 광주를 대표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이 만나 탄생한 작품이다.

의과대학 교수인 고박사에게는 혼기 찬 세 딸이 있다. 맏딸 숙희는 외교관과 결혼하지만, 신희 첫날밤에 소박을 맞는 바람에 낯 나간 사람이 되어 2층에서 은둔 중이다. 차녀 문희는 막내 동생 성일의 가정교사 준철과 사랑에 빠지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자 음독 자살을 기도하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막내딸 명희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조수, 영수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한다.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Camino de Far East Siberia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연극

창작진 극작·연출 정진세, 무대디자이너 임은주,
음악감독 정혜수, 영상디자이너 백종관,
조명디자이너 이혜지, 음향디자이너 이현석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극단

수상이력 2022 제59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13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 음향 작업 3일~5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2일

• 철수 1일

화물

1톤 트럭 3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

• 무대면적 : 폭 20m × 깊이 25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홍보 영상



실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기후위기와 온라인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좌절과 허망의 분위기를 그려낸다. 점멸하는 세계를 감각하는 연극. 깜박임 속에서 나열되는 두 연구원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대륙의 서쪽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반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러시아의 도시, 마기단으로 향하는 콜리마 대로를 건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위성으로 추적 감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 실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파생된 가상의 순례길은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를 만들어내고, 그 사용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실제로 걷게 된다. 기존의 순례 여행과는 다르게 극한의 환경을 뚫고 외롭게 혼자 걷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기상탐지 시스템의 연구원들은 여행의 이야기를 점점 채워나간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

I Wasn't There in Gwangju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작·연출 고선웅, 작 김경주 안준원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아이엠컬처,
극공작소 마방진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6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무대세트 및 조명 셋업철수 인원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소품, 조명, 음향 5톤 트럭 1대,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3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400석 내외 블랙박스 형태(체육관 등)

• 무대크기: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ACC 예술극장 극장1 공연 시, 로드형 무대, 객석 400석 운영



나는 광주에 없었다
홍보 영상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의 전모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낸다. 관객 몰입형 공연(Immersive Theater) 방식으로 제작되어 관객들 스스로가 역사를 그리고 작품을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한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숙녀에서 다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얼굴은 점점 잊히고 이제 더는 오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한편, 무대 위에서는 그해 5월의 순간들이 재현되고,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그해 5월, 오빠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한 아이에게서 잊혀가는 오빠의 얼굴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얼굴이 아님을. 그리하여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게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남을 송고한 얼굴들을. 이 극은 그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노니는 한 편의 위령가(慰靈歌)다.



남편 없는 부두

The wharf without a husband

초연연도 2023년

장르 연극

창작진 프로듀서(한국) 엄동열, (베트남) 응웬 쑤언 박,
연출 김민정, 협력연출 황 럽 동, 각색 한아름,
음악 한혜신, 제작감독 정희재 이주현,
무대디자인 김종석, 영상디자인 이수경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베트남국립극장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함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 이상(500석 이상)

• 무대크기 : 중극장 이상 : 폭 15m × 깊이 15m(협의 가능)



연이은 전쟁과 분단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봉건적 사회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베트남 국민 소설 <남편 없는 부두>를 원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베트남국립극장이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공연은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젊은 여성 하이잉이 자신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행과 관습을 깨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며 세대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무대 위를 채운 '물'은 삶의 터전이자 수천 년간 생명과 죽음, 절망과 희망을 품고 흐르는 '딘 강'을 압축하여 표현한다. 여기에 아름다운 베트남의 자연을 몽환적인 영상과 색감으로 구현하였으며, 한국의 정가와 전통 무용,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과 가야금, 베트남의 쩌오 등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연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동삼기

The Wedding Story of Kim and Shin

초연연도 2023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극본구성 강미진, 극본 문서희,
작창 윤종호, 안무 백유진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락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32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2톤 트럭 2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조선 혼인 장려 프로젝트가 현실화 된다!

판소리와 현대음악 그리고 무용, 현대적이고 세련된 무대 영상을 가미하여 조선시대 텍스트로서만 가능했던 조선 최초의 한문 희곡 '동삼기'를 보다 새롭게 각색하여 무대 위에 입체감 있게 펼쳐 놓는 판소리 음악극이다.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혼인 풍습에 따르지 않던 노총각과 노처녀가 나라의 구제책에 힘입어 혼인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전통적 결혼관의 모체인 조선 후기 희곡 '동삼기'의 원작을 우리가 직면한 현대사회의 결혼관으로 확장하여 21세기 결혼 세태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레드 올랜더스

Red Oleanders

초연연도 2019년

장르 연극

창작진 원작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각색 고연옥,
연출 김정,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 신동선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프로젝트 내친김에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33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무대세트 및 조명 셋업철수 인원 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 무대크기 :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레드 올랜더스
홍보 영상



<레드 올랜더스>는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인도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R.타고르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집필한 희곡으로, 극작가 고연옥의 각색과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김정의 몸의 연극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를 대신 번호로 불리며 어두운 굴에서 금을 파는 광부들과 도시의 지배자들, 온몸에 붉은 험죽도 꽃을 두른 채 나타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난디니'와 그녀가 기다리는 존재로 도시의 심장을 깨워줄 '문존'을 통해 근대 문명 시스템에 갇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갈망하였기에 맞이한 역설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대사, 익살스러운 표정, 과장된 움직임과 인도 발리우드 영화의 화려한 군무, 경사 무대와 서사적인 빛을 활용한 감각적인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인간 군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자유를 향한 설렘과 기다림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다.

로제타

Rosetta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연극

창작진 작·연출 김정환,
총괄 프로듀서 이영찬 고강민,
프로듀서 이준형 장도역,
음악 빅바플,
출연 리빙시어터, 극공작소 마방진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식회사 옐로밤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4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5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로제타
홍보 영상



1900년대 구한말 시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나이, 계층, 성별, 장애 등 시대가 가졌던 차별과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근대 여성 교육과 의료 봉사로 생애를 보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은 25살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매일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기록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 결혼, 한국에서의 삶, 딸과 남편의 죽음 이후 고뇌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녀가 한 선택까지...

연극 <로제타>는 그녀가 86년의 삶 중 44년을 한국에 바치며 써내려간 6권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그녀의 '순간들'을 조명한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

Time Painter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및 무대디자인 윤시중,
작 김민정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하땅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5분

투어인원

5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객석 5톤 트럭 2대, 소품, 의상 1톤 트럭 1대
(무대기술(조명, 음향) 공연장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대극장(800석 이상),

야외극장(이동형 객석 제작 및 사용)

• 무대크기 : 폭 15m × 깊이 30m × 높이 4m(최소)



시간을 칠하는 사람
홍보 영상



2018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사업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시간을 짓는 건축가’를 모티브로 하여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연극

전남도청 벽을 하얗게 칠하던 노인 김영식의 기억을
따라 전개되는 공연은 흰 칠로 지워야만 하는 아버지와
형형색색으로 그려야만 했던 아들의 시간을 통해 비극적인
현대 역사 속에서 평범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작품은 극장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한다.

매 공연 소수의 관객만이 이동형 객석과 함께 작품의 흐름과
배우의 움직임을 따라 극장을 여행하듯 이동한다.
기계의 힘으로 전환하는 무대가 아닌 배우들의 힘으로
극의 시·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하는 사람
전남도청의 철거를 앞두고 철거장비와
공사장 인부가 모여든 아침.
도청의 외벽이 부스러질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는 노인 김영식.
흰 붓질을 하면 아내 명심이 웃고,
또 한 번 붓질을 하면 아들 혁이 웃는다.
영식은 지워야만 했고,
혁이는 그려야만 했던 시간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긴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 붙인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한다.



전쟁 후에

After War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연극+음악극

창작진 공동연출 엘리자베스 마리 라벡 방케, 이동일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덴마크 북유럽연극연구소-오딘극단,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소극장 : 60분 / 중극장~대극장 : 100분

투어인원

소극장 : 1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중극장~대극장 : 36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5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소극장: 폭 12m × 깊이 13m × 높이 8m

중극장~대극장: 폭 20m × 깊이 25m × 높이 8m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전쟁 후에
홍보 영상

©Amanda Appel



©Amanda Appel

작품소개

호랑이도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상은 생존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무기이며,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AFTER WAR 전쟁 후에'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혼돈과 슬픔, 전쟁의 메아리에 대한 공연입니다. 영토, 국가, 세대, 68년도 자유의 바람, 동서양의 만남, 호랑이 이야기, 역사의 소리, 죽은 자들의 대화, 총소리, 죽은 자로의 전환, 개인과 공동체, 귀향... 우리를 이어주는 삶의 흔한 부조리.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AFTER WAR 전쟁 후에'는 누군가의 기억일 수도 있고 왜곡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뒤따르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면 악몽일 수도 있고 그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에게도 남은 것은 추억뿐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중 일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첫 번째 돌을 던졌습니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남겨진 상처받은 사람들, 싸우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싸우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즐거리

우리는 전쟁 후에 죽은 영혼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한때 그는 군인이었고, 혁명의 아이였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좋은 친구였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제복을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지금은 죽은 원한의 영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의 일부였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전쟁의 역설을 대표하는 청년입니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샤먼은 젊음이 넘치는 혁명가 아들이 군인이 되었을 때부터, 그가 어느 편에서 싸웠는지 의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발견할 때까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접시꽃 길 85번지

Rose Mallow Street #85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최용훈, 작 김숙중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작은신화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2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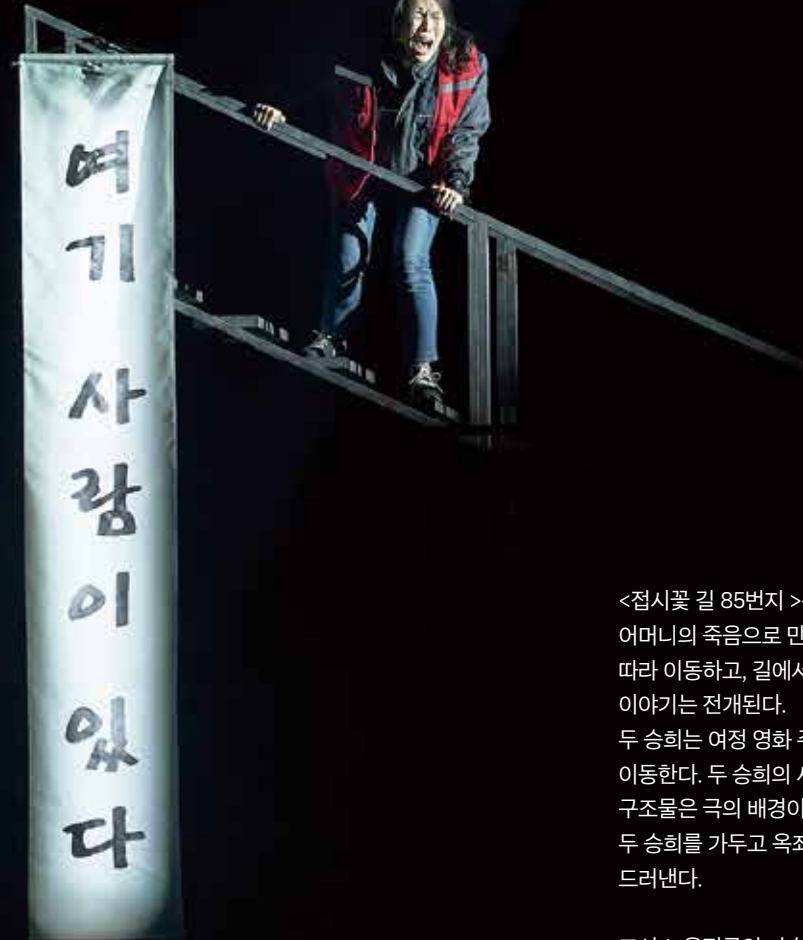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20m × 깊이 25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접시꽃 길 85번지
홍보 영상



<접시꽃 길 85번지>는 두 승희가 떠나는 여행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난 두 사람이 어머니의 길을 따라 이동하고, 길에서 조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는 전개된다.

두 승희는 여정 영화 주인공처럼 무대 여러 공간을 이동한다. 두 승희의 세상을 형상화한 거대한 구조물은 극의 배경이자 어머니의 흔적이며, 두 승희를 가두고 옥죄는 사회구조로 이중성을 드러낸다.

조선소 용접공인 나승희는 고아가 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죽음으로 어머니에게 차승희라는 친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서 지금껏 받았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이해한다. 나승희는 차승희의 출소 날 교도소를 찾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차승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승희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지정

Self-designation

초연연도 2021년

장르 SF 연극

창작진 작 장우재, 연출 박정희, 무대미술 여신동,
영상디자인 윤민철, 음향디자인 전민배 외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풍경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2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3-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소품 및 조명 3.5톤 트럭 1대,
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10m x 깊이 7m x 높이 8m(최소)

지정
홍보 영상

©황선하



멀지 않은 미래, AGI(범용인공지능)가 사람의
인지신경을 직접 조절할 수 있고, 이를 정신상담
분야에 적용한 'AGI 정신과의사'가 등장한 시대.
몇 년 전 단편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에 진출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영화과 4학년 '제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니는 AGI 정신과의사
'콜리'와의 상담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정'에
관심을 둔다. 지정은 제니가 힘들어 하는 심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콜리는 제니의 지정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와중에
그의 심리적 장애요인이 예상과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하고 제니와 함께 다른 방식의 지정을 시작한다.
이후 제니의 소식에 학교는 슬렁이고 제니의 선택이
정신적 자살이라는 논란까지 벌어지는데....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

Kushname - Unfinished Story

초연연도 2023년

장르 연극

창작진 프로듀서 고강민, 극작 안리준, 연출 서정완,
음악감독 한보람, 안무감독 안미경,
보이스감독 류미, 무대·영상디자인 EASThug,
조명디자인 장원섭, 음향디자인 박한경은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공작소 마방진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소극장 : 3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 무대 1톤 트럭 1대

• LED팀 5톤 트럭 1대 + 1톤 트럭 1대

• 컴퓨터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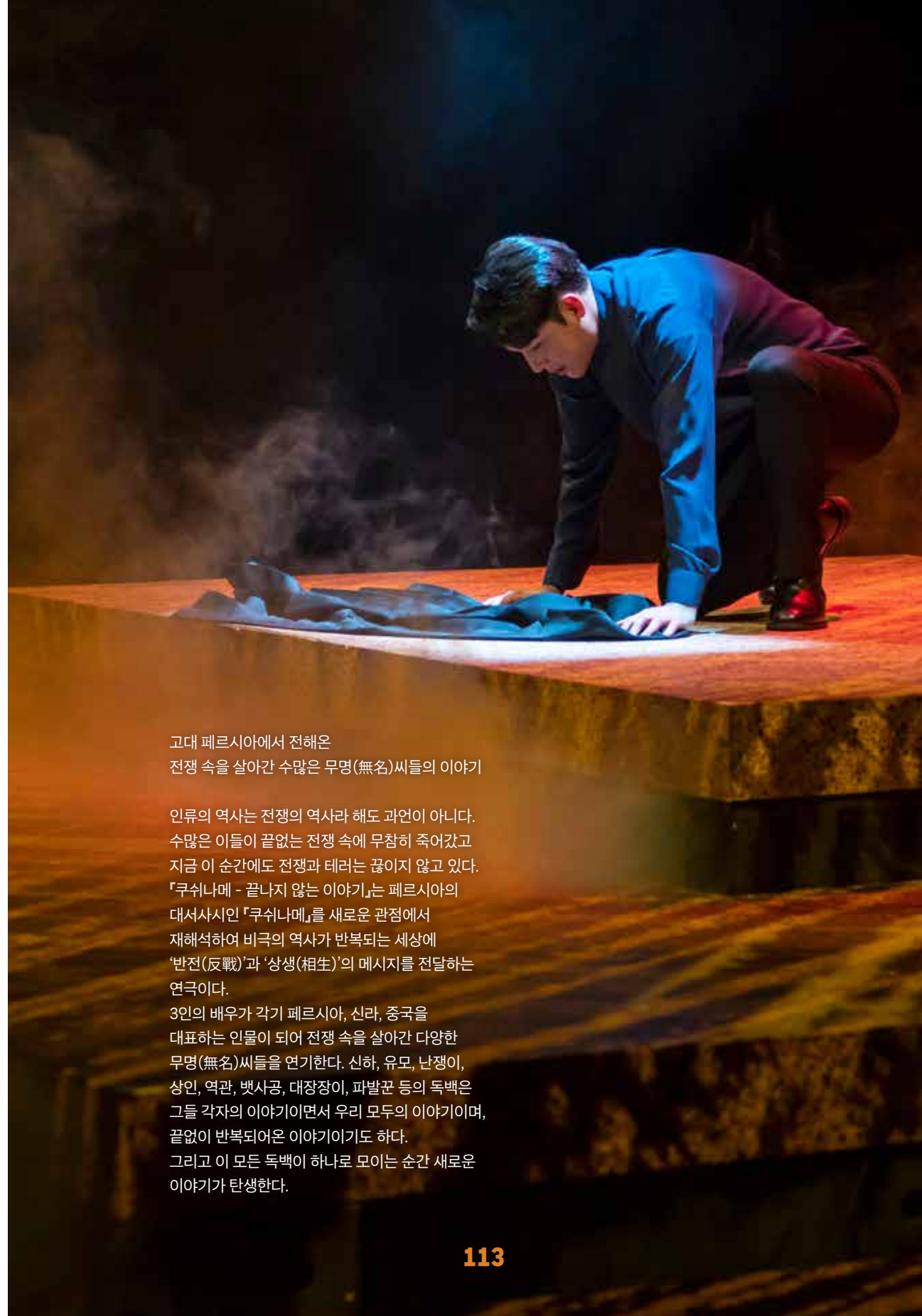
• 객석규모 : 소극장(100~200석)

• 무대크기 : 소극장: 폭 12m × 깊이 15m × 높이 8m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
홍보 영상



고대 페르시아에서 전해온
전쟁 속을 살아간 수많은 무명(無名)씨들의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끝없는 전쟁 속에 무참히 죽어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인 『쿠쉬나메』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세상에
‘반전(反戰)’과 ‘상생(相生)’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극이다.

3인의 배우가 각기 페르시아, 신라,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전쟁 속을 살아간 다양한
무명(無名)씨들을 연기한다. 신하, 유모, 난쟁이,
상인, 역관, 뱃사공, 대장장이, 파발꾼 등의 독백은
그들 각자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끝없이 반복되어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독백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한다.

솔루우수우

Suluusuu

초연연도 2021년
장르 가족뮤지컬
창작진 작 오세혁, 연출 손효원,
 작곡·음악감독 다미로,
 작곡·연주 우스탕사키르트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네버엔딩플레이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 및 음향 1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 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2m × 깊이 12m × 높이 13m



솔루우수우
 홍보 영상



키르기스스탄의 글 작가와 한국의 그림 작가가 제작한 그림책 '이식쿨 호수의 솔루우수우'를 원작으로, 국내 창작진과 키르기스스탄의 우스탕사키르트 앙상블의 협업으로 제작된 가족 뮤지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를 배경으로 일부 넘버에 키르기스스탄 전통 음악 앙상블이 작곡과 연주에 참여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자연과 음악을 담았다. 신화 솔루우수우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름다운 호수의 여왕 솔루우수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 아이들의 우정 이야기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친구의 마을을 불태우는 절망의 상황. 전쟁 쓰레기로 물이 오염되고 말라버린 호수. 푸른 호수의 여왕 솔루우수우와 소녀 수우는 서로 다른 언어를 뛰어넘어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호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을 떠올리는데... 전쟁으로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호수는 맑은 물을 되찾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쿵짝 두 번째 이야기 - 얼썩

The Story after Kungjjak - Eolssu

초연연도 2017년

장르 가족뮤지컬

창작진 작·작사 김영선,
연출 이상욱, 작곡 박지만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우컴퍼니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110분

투어인원

2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 음향 각 1.5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8m × 높이 7m



쿵짝 두 번째 이야기 - 얼썩
홍보 영상



한국 대표 단편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현대적 정서로 각색하여 청소년에게는 더욱 흥미롭게, 성인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다. 첫 번째 시리즈 쿵짝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리즈로 제작된 얼썩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랑에 대한 인간 내면의 오묘한 심리를 문학적 색채로 표현한 김유정의 '봄봄'(1935년 작),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1936년 작), 오영수의 '고무신'(1949년 작)을 한국적 정서와 전통을 기반으로 재해석하였다.

그 물

The Water

초연연도 2021년
장르 판소리
창작진 정은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및 악기 1톤 트럭 1대, 조명 및 음향장비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18m × 깊이 14m × 높이 8m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그 물
 홍보 영상

정은혜는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리꾼으로 판소리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음악가이다. 전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메디아',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등에서 주역을 맡는 등 대표적인 디바로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판소리 다섯 마당 및 8회 완창 무대를 갖는 등 국악계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하였으며, 제42회 전국대사승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차하, '21C를 빛낼 우수인재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다.



다섯 바탕의 판소리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물, 그리고 '물'에 관한 서사를 표현하는 1인 창작 판소리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의 제작 시리즈 판(PAN)을 통해 2021년 초연을 선보인 작품 '그 물(The Water)'은 한국의 음악적, 연극적 원형으로 평가받는 전통적 판소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작업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판소리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의 눈대목을 엮어 새로운 레퍼토리로 선보인다. 소리꾼 정은혜는 독보적인 목소리로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 작품을 통해 기존 전통 판소리의 인물과 스토리를 무대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여 선보인다. 다섯 바탕의 판소리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물, 그리고 '물'에 관한 서사를 중첩적으로 표현하는 이 작품은 전통적 레퍼토리를 관통하며 동시대의 새로운 담론을 관객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공연내용

1. 정정렬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진양조
2. 박죽주제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3. 박초월제 수궁가 중 수궁천리 머다마소
4. 강산제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
5. 박봉술제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동춤

Daedong Dance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전통예술

창작진 연출 김상연, 안무 안덕기 조재혁 유선후,
작곡 김대성 박영란 정송희,
조명 노상민, 영상 김명우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사 RYU

관람연령 6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4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극장 셋업 및 철수 인원 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 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2톤 트럭 1대, 악기·소품 1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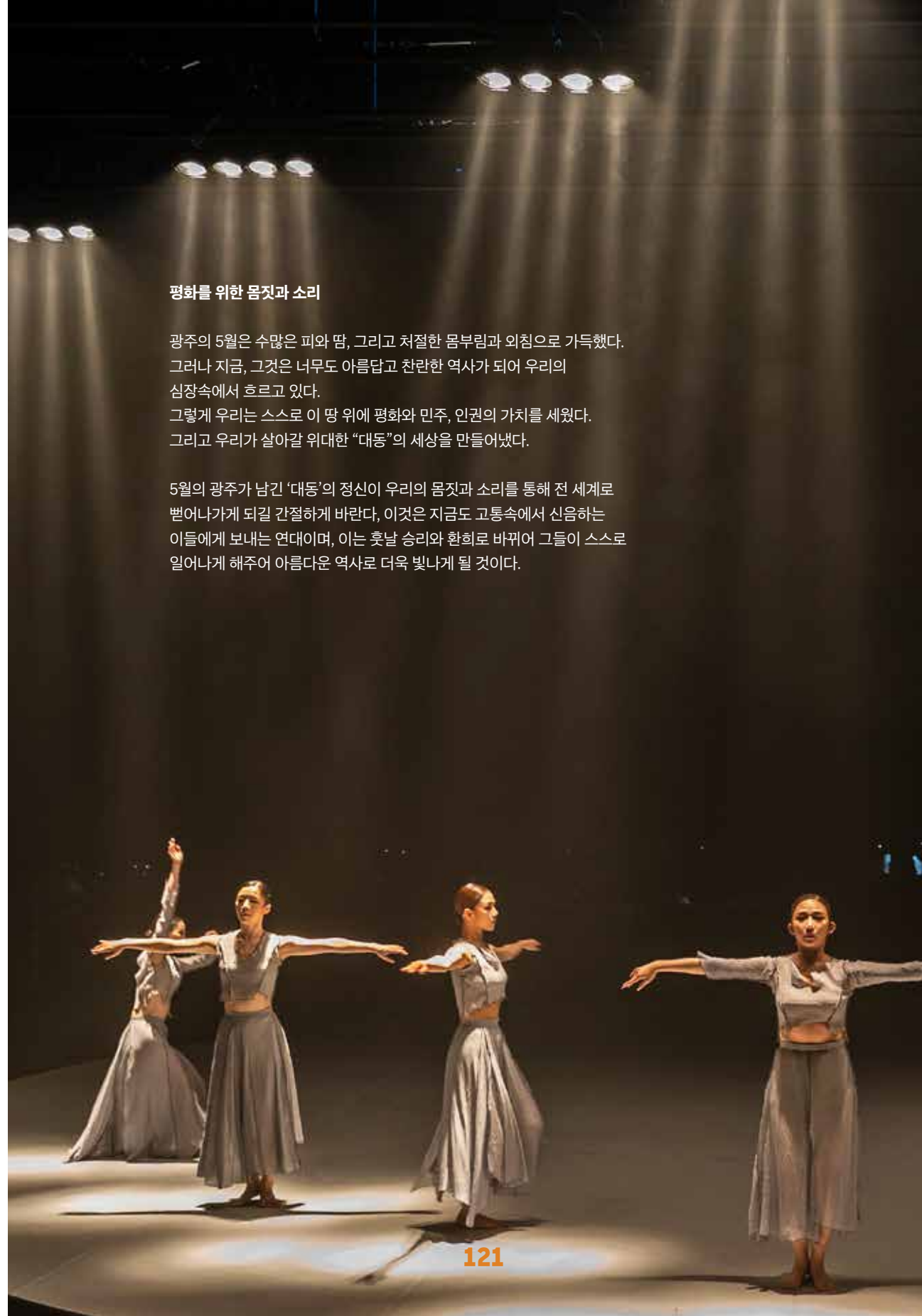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4m × 깊이 17m × 높이 10m(최소)



대동춤
홍보 영상



평화를 위한 몸짓과 소리

광주의 5월은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가 되어 우리의
심장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 땅 위에 평화와 민주, 인권의 가치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위대한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5월의 광주가 남긴 ‘대동’의 정신이 우리의 몸짓과 소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 이것은 지금도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연대이며, 이는 훗날 승리와 환희로 바뀌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어 아름다운 역사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스토리 인 아시아

Story in Asia

초연연도 2019년
장르 판소리
창작진 프로듀서 유현진,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
 고수 김홍식 이향하 신승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및 악기 1톤 트럭 1대, 조명 및 음향장비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12m × 깊이 13m × 높이 8m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스토리 인 아시아
 홍보 영상



아시아권의 설화를 엮은 책 '백 개의 아시아'에서 입과손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이 두 개 국가의 설화를 원작으로 채택하였다. 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남자 또는 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작은 권선징악, 주어진 삶(순리)에 순응하는 태도 등 고전적인 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훈적 가치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입과손스튜디오는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주인공 '소년',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지를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전통음악인 '가물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이국적이면서도 이야기와 잘 맞물리는 리듬을 개발하였다.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2명의 소리꾼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다인화자' 기법을 채택하여 더욱 폭넓은 형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쟁하고 해뜬 날

Two Suns Rise

초연연도 2019년

장르 판소리 음악극

창작진 극작·연출·작창·음악감독 박인혜,
각곡·편곡 유찬미, 안무 김시화,
프로그래밍 김문고, 무대디자인 박동우,
조명디자인 김건영, 음향디자인 정새롬,
영상디자인 ESThug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판소리 아지트 놀애박스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80분

투어인원

23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철수 1일

화물

5톤 화물차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중극장(100석~1,000석)



쟁하고 해뜬 날
홍보 영상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 떠오른 두 개의 태양. 말라버린 세상을 구할 영웅을 찾아서!
신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으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빠르게 바뀌는 현대의 그 어느 날.
하늘 위로 태양 두 개가 떠오르며 극심한 폭염이 시작된다.
땅이 마르고 온갖 생물들이 죽어가고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때,
신화학자 김도영이 이를 해결할 영웅을 찾아가겠다고 사람들을 모은다.
그렇게 모인 3인은 전설 속 영웅을 찾아 B급 신들이 모여 산다는 전설 속 그곳,
'유리국'으로 향하는데...



공허와의 만남

Picture of Vacuum

초연연도 2022년

장르 무용

창작진 연출 스테파니 티어쉬,
극작 스타를라 파나지오타기,
협력안무·만신 민혜경,
음악감독 마리야나 사도브스카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무부아르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5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공허와의 만남
홍보 영상



다양한 문화의 전통의례 양식을 기반으로 '비탄(lament)'의 감정에 대해 풀어나가며 한국의 샤머니즘 의례와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는 실험 무용 공허와의 만남(Picture a Vacuum)은 ACC 국제 공동 창·제작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독일의 현대무용단 무부아르(MOUVOIR)의 상임안무가 슈테파니 티어쉬(Stephanie Thiersch)와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가 함께 제작한 한-독 공동 창·제작 공연이다.

황해도 만구대탁굿 전수자 민혜경 만신과 창작무용가 장혜림이 창·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며, '비탄(Lament)'이라는 주제와 다양한 문화의 전통의례 양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비탄적 정서인 '한'과 이와 밀접한 전통의식인 '굿'을 통해 공동체의 의의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탄적 정서인 '한' 그리고 이와 밀접한 전통의식이자 종합예술인 '굿'에 초점을 두며, 이를 매개로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상실의 슬픔, 비탄의 상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무용 공연이다.



마디와 매듭

Knottng the time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종합극
창작진 극본 배삼식, 음악 최우정, 연출·안무 정영두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콘서트, 무용공연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공연 구성에 따라 투어인원 조정 가능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5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무대크기 :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마디와 매듭
홍보 영상



동지부터 하지까지: 춤과 노래로 엮은 여인들의 이야기
배삼식×최우정×정영두가 만드는 아름다운 한 편의 공연
 <마디와 매듭>은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작품이다.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인간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24절기가 작품의 큰 틀을 구성하며, 절기별로 달라지는 풍경과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시간의 마디 마디 안에서 여인들의 ‘용이진 마음’에 서리고 ‘세월에 묻은’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추위와 배고픔, 허리 펴 틈 없는 고단한 농사일을 견디는 날들 속에서 때로는 짓궂게 킁킁대다가, 때로는 떠나보낸 누군가와 한 시절을 절절히 그리워하기도 하고,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한입 베어 무는 복숭아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지난 세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은 장르간의 조화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이야기와 음악과 무용은 서로를 존중하고 끌어안으며 하나의 공연 안에서 나란하게 가능하다. 극본 배삼식·음악 최우정·연출과 안무에 정영두, 각 분야에서 동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창작진이 절기에 따라 생동하는 여인들의 삶을 한 편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빚어낸다.



척

Check

초연연도 2021년

장르 현대무용

창작진 안무·예술감독 안애순, 음악 박민준,
 드라마투르그 김지연, 무대미술 김종석,
 조명 이승호, 영상 추미림, 의상 이서윤,
 제작무대감독 김지명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작지원 옐로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7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셋업 및 철수 인력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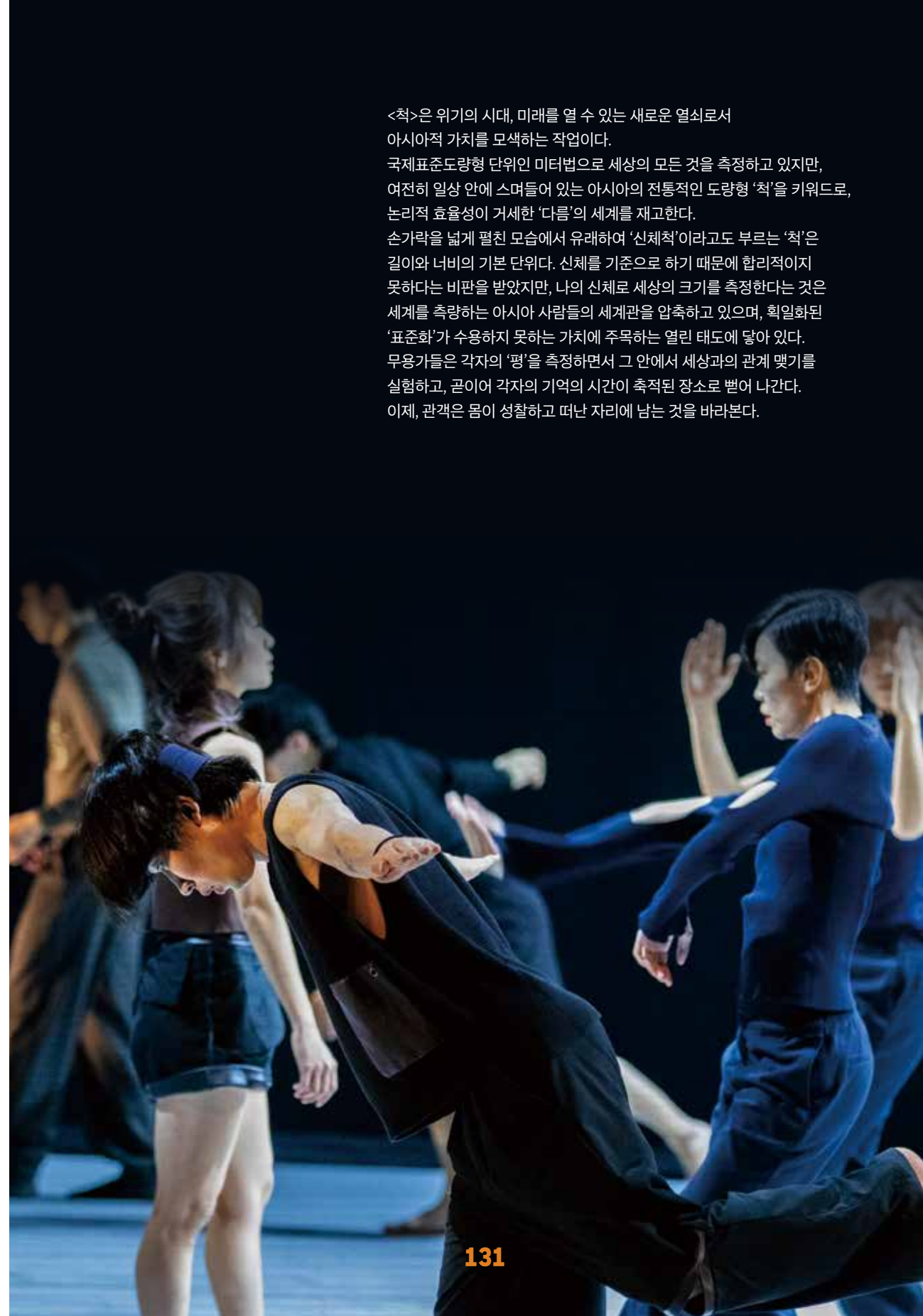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 무대크기 : 폭 13m × 깊이 13m × 높이 18m(최소)
-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 ※ 본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무용커뮤니티 협력 사업으로 개발됨



척
 홍보 영상



<척>은 위기의 시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열쇠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국제표준도량형 단위인 미터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도량형 '척'을 키워드로, 논리적 효율성이 거세한 '다름'의 세계를 재고한다. 손가락을 넓게 펼친 모습에서 유래하여 '신체척'이라고도 부르는 '척'은 길이와 너비의 기본 단위다. 신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의 신체로 세상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세계를 측량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압축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표준화'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는 열린 태도에 닿아 있다. 무용가들은 각자의 '평'을 측정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실험하고, 곧이어 각자의 기억의 시간이 축적된 장소로 뻗어 나간다. 이제, 관객은 몸이 성찰하고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을 바라본다.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

초연연도 2021년
장르 현대무용
창작진 안무·연출 김경신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플러그드바디즈
수상이력 2022 한국현대무용협회 안무가상, 무용수상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34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2~28m 이내 × 깊이 10~28m 이내 ×
 높이 7~10m 이내



호모 루피엔스
 홍보 영상



<호모 루피엔스>는 2020 ACC 현대무용
 인큐베이팅 창·제작 쇼케이스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2021년 본 공연으로 제작되기 전
 국내외 주목을 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무용극이다.

<호모 루피엔스>는 미래의 인류상을 그리는
 동시에 인간이 쫓는 욕망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예술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성 있게 제작된 무용극으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예측들이
 직업에 대한 변화와 인간의 유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유희성.
 미래에는 그 유희의 인간이 지식의 인간과 도구의 인간 그리고
 로봇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호모 루덴스(Homo
 Lude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합성어인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라는 인간 유형을 의미하는 단어를 창출하였다.
 인플러그드바디즈의 호모시리즈 중 세번째 작품인
 <호모 루피엔스>에서 호모 루피엔스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담은 용어로 사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묘사하여 미래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유희의 인간과 지식의 인간의 경쟁이 만들어낸 ‘호모 루피엔스’.
 인생은 탈출의 연속이다.



히어데어

HereThere

초연연도 2017년
장르 현대무용
창작진 안무 안애순, 드라마투르그 김재리,
 리허설디렉터 황수현, 음악감독 김기영,
 작곡 사운드 디자이너 피정훈,
 의상디자이너 임선열,
 조명디자이너 킨세이(Kinsei)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히어데어
홍보 영상

투어인원
 2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셋업 및 철수 인력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 무대크기 : 폭 13m × 깊이 13m × 높이 1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 본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무용커뮤니티
 협력 사업으로 개발됨



히어데어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 퍼져 있는 '원무(Circle Dance)' 중 하나인 강강술래를 차용하여 지금의 춤과 전통,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강강술래의 원형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몸에서 몸으로 옮겨가고 반복되며 지금으로 건너졌다. 이 작업은 지나간 시간과 사라진 공간을 현존하는 몸과 춤으로 포착하기 위해 한 무리를 이루는 개인들의 몸짓에 밀착해 다가간다. <HereThere>에 출연하는 18명의 아시아 여성 무용수들의 춤은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몸에 감지되어있는 경험과 이야기들은 주제적이고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누군가로부터 규정되는 아시아의 이미지에 다른 모습으로 대면한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걷고, 돌고, 뛰고, 들쭉거리는 몸짓들을 통해 지금까지 감춰져 있거나 찾지 않았던 다른 모습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몸에 누적된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역사를 작동시키는 것은 하나의 힘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역사관을 제안한다.

여기(Here)에서 거기(There)로 다가가기, 멀어지기

<HereThere>는 여기와 거기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결성과 긴장감에 주목한다.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의 덩어리진 몸들에 밀착해 다가갔을 때 무엇이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생동한다. 여기와 거기가 맺는 장소적인 관계에 대한 탐색은 지금 존재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도 새로운 것으로 변환시킨다. 춤추는 무용수에게 한걸음, 혹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발견되는 얼굴 표정의 변화, 손짓의 리듬, 시선 등은 하나의 의미를 작동시키는 표현, 그 자체이다. <HereThere>는 멀리서 보아 아름다운 대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두 개의 장소성이 혼재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지금 보고 있는 대상과 사건, 그리고 춤을 새롭게 마주하고자 한다.

ASIA CULTURE CENTER

청소년/어린이 공연

길 위의 아이

A Child on the Road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청소년극/연극

창작진 작 김지현, 연출 이영숙,
무대·오브제, 의상디자인 강정화,
음악 김재훈, 조명 정유석, 영상 정혜지,
애니메이션 정경은, 사운드 박진호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올리브와핀콩

수상이력 2022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김숙희 특별상

관람연령 12세 이상

공연시간 65분

투어인원

16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영상, 음향, 조명작업 3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영상,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조명, 음향 극장 장비 사용)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2m × 깊이 8m × 높이 7m(최소)



길 위의 아이
홍보 영상



국가가 자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례인 1960년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의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고립된 두 소년은 탈출의 한 방편으로 방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둘은 죄의식에 휩싸여 혼란을 겪는다. 그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죄의식은 둘의 상상놀이 안에 드러나게 되고 각자의 입장이 다름을 알게된다. 친구인 둘의 관계는 처음 탈출을 도모할 때와 달리 변질된다.

2인극 형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놀이가 거칠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고, 소리를 통해 밖과 안을 단절시키며 현실에서 비현실로,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놀이에서 무의식으로의 전이를 통해 관객은 소년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함께 침잠해 들어간다.

*선감학원 :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 1970년대 말까지 존속된 소년 감화원



춤추는 과학자들

Dancing Scientist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마임극

창작진 연출 이정훈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판토마임팩토리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90분(공연 + 진로토크)

투어인원

7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또는 강당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7m × 높이 3m



춤추는 과학자들
홍보 영상



©이슬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우울해 하는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서로에 대한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만들자는 의도가 담겼다. 또한, 미래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상상한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된다. 수업도 집에서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잠시 나갔다 와도 손을 씻는다. 학교에 갔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써서 상대방의 기분도 몰라 서로 어색하게 된다. 기침을 하면 서로가 쳐다보고 마스크를 안쓰면 다가오지도 않는다. 결국 각자의 공간에만 있게 된다. 코로나블루 현상처럼 모두 파란색으로 변해간다.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흰색가운을 입고 실험실로 가는데...



©이슬

개굴개굴 고래고래

Frogs and Whales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연극
창작진 연출 이도윤, 작 이도윤 최하늘,
 안무 구선진, 작곡 옴브레 손희남 김솔지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즐겨찾기
수상이력 2021 춘천인형극제 대상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13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7m × 높이 4m



개굴개굴 고래고래
 홍보 영상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공감각을 일깨워 주는 공연!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올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어린이연극이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개구리 구르구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고래 선생님을 찾기 위한 구르구르의 모험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사막화 되어 가는 숲.
 개구리 구르구르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래 선생님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배를 타고 고래 선생님을 찾아 나선 구르구르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구르구르는 무사히 고래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비를 내릴 수 있을까?



거인 앙갈로

Giant Angalo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음악극
창작진 작 이가현, 연출 최은정,
 음악감독 이우영 신창렬,
 안무 지경민, 작곡 신창렬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국악그룹 그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주 관객층 : 미취학아동 및 저학년 가족단위 관객)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6m × 높이 3m

작품소개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는 필리핀 민담 '바닷물은 왜 짭까?'라는 이야기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 음악극이다.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필리핀 민요 오르데-에(Orde-e)를 편곡하여 주요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등 음악 속에 아시아를 담았다.
 거인 앙갈로와 두 사람을 통해 우정, 배려, 이기심을 이야기하며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줄거리

옛날 어느 마을, 소금섬에는 커다란 맷돌이 뱅글뱅글 돌며 끝없이 소금을 쏟아낸다.
 사람들은 바다 건너 소금섬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풍랑이 닥쳐 더 이상 소금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다. 바다를 보며 한숨만 쉬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사는 거인 앙갈로를 떠올린다.
 과연, 사람들은 앙갈로의 도움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거인 앙갈로
 홍보 영상



괴물 연을 그리다

YEON - The Story of a Monster

초연연도 2020년

장르 복합

창작진 연출·작 이미희,
음악감독·작곡 이보람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1톤 트럭 3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6m × 높이 3m

※ 무장애(배리어 프리) 공연 가능

(화면해설 및 음성해설 제공)



괴물 연을 그리다
홍보 영상



“괴물 연을 그리워하다”

“괴물 연을 그림 그리다”

“괴물 연을 상상하다”

중국의 ‘춘절’에 대한 사실적 기원에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하여 소년과 괴물 연의 슬픈 우정을 이야기한다.

그림꾼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듣게 된 중국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 도화촌에 부모 잃은 한 소년과 그가 그린 그림 속 친구 ‘연’의 오랜 우정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떠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하루 마을에 나타나는 ‘연’, 마을 사람들은 ‘연’을 괴물로 여기고 공격하는데...



깔깔나무

The Giggling Tree

초연연도 2015년

장르 인형/음악극

창작진 연출 윤정섭, 인형연출 문재희,
원작 박새봄, 각색 최은이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1톤 트럭 3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4m

※ 영상미디어 활용이 중요한 작품으로 빛 차단 필수

※ LED 별막 설치로 4m 내외의 천장 높이 필수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깔깔나무
홍보 영상



어린이 인형 오브제를 영상과 결합한

복합 멀티미디어 음악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들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우정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일깨워준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파니는 아끼는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는

엄마 말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온 파니.

쓸데없고 지저분한 것들을 모아 간다는 수레

할아버지가 ‘곰곰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한 파니는

할아버지의 고물상에서 경중이, 움짚이 형제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다 같이 ‘곰곰이’를 찾아

나서기로 하는데...



나무의 아이

Child of the Tree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어린이 음악극

창작진 대본·작사 구도윤,
작곡·음악감독 민찬홍,
연출 홍성연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그룹 동화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2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8m × 높이 6m



나무의 아이
홍보 영상



<나무의 아이>는 '목도령과 대홍수'라는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남과 다른 아빠를 가진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이야기다. 출연진이 직접 국악기를 연주하며 이야기와 음악을 풀어나가는 어린이 음악극으로, 단순하고 쉬운 언어와 액터뮤지션의 라이브 연주에 움직임을 더하여 아이들의 상상의 폭을 넓히는 작품이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 커다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울고 있는 한 아이...
바로 나무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나무도령이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외톨이 나무도령이지만, 사랑하는 아빠 옆을 떠날 수는 없다. 나무도령은 아빠를 위해 물을 길러다주고 벌레를 쫓아내며 나무아빠를 지키고, 나무아빠는 아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가지에 올라 누구보다 높은 세상을 보여주며 나무도령을 키운다. 그런 행복한 때도 잠시...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 세상을 집어 삼키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위태로운 홍수세상에서 불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빠와 아들은 과연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



달을 묻을래

Burying the Moon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연출 천정명, 대본 박지선, 음악감독 이서연, 움직임 지도 변영미, 조명 디자인 우수정, 오브제 디자인 서현제, 의상 디자인 임은주, 음향감독 전민배, 무대감독 서현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야기양동이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4-1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무대크루 2명 / 조명크루 3명 별도
일정
 •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테크 리허설 및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 내외) ~ 중극장(300석 내외)
 • 무대크기 : 폭 11m × 깊이 9m × 높이 5m(최소)



달을 묻을래
홍보 영상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깜깜한 ‘밤’에만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심지어 화장실이란 말조차 쓸 수 없다면?

<달을 묻을래>는 동화책 ‘달을 묻다’(앙드레 폴랭)를
 원작으로 재창작한 어린이 연극이다.
 네 명의 이야기꾼이 말과 움직임, 때로는 인도 느낌이
 물씬 나는 춤과 노래로 주인공 ‘라티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장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지역 여성으로,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라티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직접 만들고자 한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 ‘라티카’가 살고 있다.
 라티카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들은 하루 내내 볼일을 참다가
 어두워지면 들판으로 나간다.
 라티카가 들판에서 하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달은 세상을 환히 비춘다.
 알미운 달을 땅에 묻고 싶은 라티카는
 드디어 곡괭이를 든다. 쿵! 쿵!
 라티카는 과연 달을 묻을수 있을까?



마법의 샘

The Magic Spring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정지현, 작 문진영,
음악감독·작곡 이승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젝트그룹 스토리너머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
- 배우 리허설 1일(공연일 가능)
- 철수 1일(공연일 철수)

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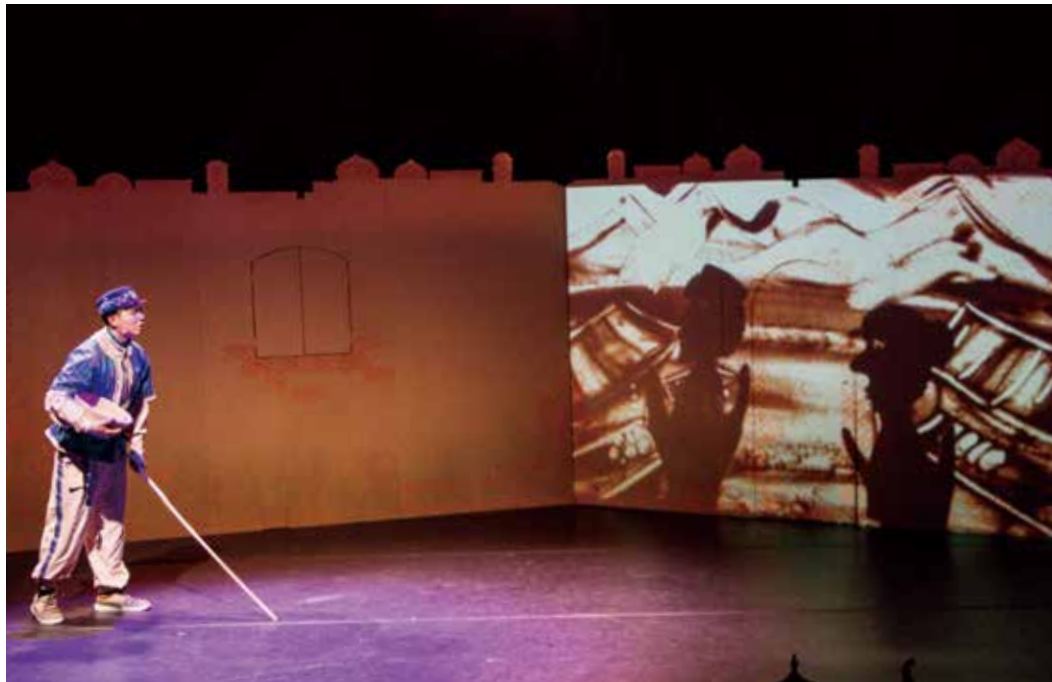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중극장(500석)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7m × 높이 7m(최소)



마법의 샘
홍보 영상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타지키스탄의 전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마법의 샘>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상처 입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를 치료하고 구할 수 있을까?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평면의 샌드아트와 다양한 그림자 퍼포먼스는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배우들을 만나 공연을 즐기는 모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과 이국적인 의상은 타지키스탄의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신비한 ‘마법의 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마법의 샘을 찾아 헤맸던 왕은 장터의 눈 먼 소년이 이상한 노인이 가져온 마법의 샘물로 눈을 뜨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욕심 많은 왕은 소년을 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사라진 노인이 나타날길 기다린다. 과연, 욕심 많은 왕은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마법의 샘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막대뚝뚝 피지컬 - 불난 오니

Two Goblins, Going to Town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신체+오브제극

창작진 공동창작 안혜민 윤희균,
협력연출 박호빈, 무대미술 및 의상 조경희,
사운드 디자인 김태완, 조명 디자인 윤광덕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비한 움직임 사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리허설 1일, 공연일 철수

화물

승합차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8m × 높이 6m



막대뚝뚝 피지컬 <불난 오니>
홍보 영상



막대뚝뚝 피지컬<불난 오니>는 일본 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올어버린 빨간 오니'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다양한 소품과 신체언어를 활용하여, 막대를 부수고 쌓는 조형적인 신체 움직임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색다른 시도로 어린이 관객을 감각적 세계로 인도한다.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색과 모습이 달라 외면받는 빨간 오니가 친구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나다움'을 이야기한다.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

Banana flowers have bloomed

초연연도 2023년

장르 어린이 연희극

창작진 타악그룹얼쑤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타악그룹얼쑤

관람연령 모든 연령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14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무대 셋업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1톤 트럭, 조명 1톤 트럭, 음향 1톤 트럭

공연장 규모

• 실외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8m(최소)

• 실내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6m(최소)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는 필리핀 민담 ‘거북이와 원숭이’를 모티브로 한 타악&무용 난버벌 퍼포먼스 창작 연희극으로 평화로운 우이끼섬 어디론가 밀려온 바나나 나무를 찾기 위해 함께하는 두 동물들의 여정을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우이끼섬은 원숭이들이 사는 섬이다. 어느 날, 우이끼섬에 거북이가 이사를 오게 되고 성격 급한 원숭이들은 느릿느릿한 새 이웃 거북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던 도중 폭풍우와 함께 바나나나무 한 그루가 떠내려오고, 원숭이와 거북이는 섬 어딘가에 밀려온 바나나나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과연 그들의 모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이아르의 노래

A song of Boyar

초연연도 2018년
장르 소리음악극
창작진 작 김지현, 연출 이영숙, 음악감독 김재훈,
 의상 및 무대 강정화, 조명 김용호, 음향 안세운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올리브와 찹콩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전 일정 가능 (협의 후 조율)
화물
 1.4톤 1대
공연장 규모
 • 소극장 이상 가능
 • 무대 포켓(최소 2m x 2m, 상하수 한편)이 있어야 함



보이아르의 노래
 홍보 영상



경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되기

더 이상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난민 문제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함으로써 기존의 통념과 가치에 질문을 던지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이아르'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가어로 '바람'을 뜻한다. 바람처럼 세상 이곳 저곳을 떠도는 난민을 상징하기도 하며, 세상의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바람의 노래의 의미가 있다. 이야기는 가상의 마을 '하나린'의 이야기로 상징화 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이슈에 대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작품이다. 난민 이슈를 공간의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무대 형상화 하고자 했다. 호혜적, 인도적 차원의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물리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감각 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자 했다.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낯선 존재에 대해 적대와 편견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의 과정으로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우리는 이야기 속 리아처럼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고 온갖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리음악극

형식적으로 다양한 일상의 소리와 오브제들이 놀이적으로 표현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악기인 리코더와 장구의 조합이 두 소녀의 만남의 과정을 음악적으로 들려준다. 일상의 소리와 음악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듣기의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하고,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와 소재를 소리(퍼커션)와 음악(리코더, 실로폰 등)을 통해 은유적으로 풀어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음악적 컨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악기와 음악이 융합하여(리코더, 국악기, 바로크 음악 등) 조화를 형성화 하고 있다. 인물의 감정을 다양한 일상의 소리로 대체하고, 폭력에 대한 기억과 고향에 대한 꿈 등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으로 표현하여 상상력을 극대화하였다.

작고 아름다운 '하나린' 마을에서 펼쳐지는 소녀 '리아'와 강 건너 마을에서 온 모야족 '쿠시'의 우정 이야기. 망고나무 '고고'와 함께 평화로운 날을 보내던 소녀 '리아',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놀던 곳들이 전부 사라지고, '고고'도 베어져 버린다. 모든 게 사라진 자리는 천막집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천막집에는 모야족 소녀 '쿠시'와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 리아는 쿠시가 밟기만 하다. 리아는 놀 곳이 사라진 것도, 숲이 사라져버린 것도 전부 다 쿠시 탓인 것만 같다. 어느 날, 친구들이 쿠시를 괴롭히고 놀리는 모습을 보며 리아는 쿠시가 걱정되기 시작하고 이름을 물어보면서 서로 친해지게 된다. 하지만 리아의 오빠는 모야족과 친해지면 안된다고 한다. 리아와 모야족 쿠시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세 친구

Three Friend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인형극
창작진 각색·연출 신인선, 희곡 양수근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형극연구소 인스
관람연령 4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1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셋업인원 별도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 무대 : 2.5톤 트럭 1대 / 소품, 음향 - 스타렉스 밴 1대
- 조명 :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7m(최소)



세 친구
홍보 영상



‘도대체 태양은 밤 동안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도대체 태양은 밤에 어디에 숨는지 너무나 궁금해진 새끼 염소, 새끼 양, 송아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친구인 세 마리의 아기 동물들은 목동들의 눈을 피해 몰래 유르트를 빠져나와 모험을 떠난다. 호기심이 많은 새끼 염소, 똑똑한 새끼 양, 힘센 송아지, 어린 세 친구들은 초원을 따라 먼 길을 달려 태양이 어두운 동안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세 친구들은 여러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를 지켜준다. 맹수들을 만나는 가장 큰 위기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친구들은 먼 길을 달려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잘 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어른들은 당연히 잊어버린,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궁금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Sia & Fam : Treasure Hunters

초연연도 2017년

장르 어린이뮤지컬(영어 공연 가능)

창작진 작·연출 김영원,
작곡 임재훈 러시안롤렛 이은영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선데이트릭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2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조명, 음향 3.5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7m × 높이 10m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홍보 영상



아시아 어린이들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어린이 뮤지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어린이들이 소개하는 자국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건축물? 찬란한 문화유산?
즐거운 노래와 멋진 춤, 그리고 각국 어린이들의
전래놀이를 통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 떠난다.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그런 보물이 정말 있을까?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아시아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모험이 시작된다!
언제나 밝은 마음의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시아(SIA)와
친구들을 두루 배려하는 듣직한 고니(GONEE), 지혜롭고
다양한 정보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페리(PAREE),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똑똑박사 칼리(KALEE),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 뭐든 똑딱 만들어내는 엘리(ELEE),
상상력과 예술적 에너지가 넘쳐 친구들에게 언제나 웃음을
안겨주는 키니(KEYNEE), 늘 즐거움이 넘치는 시아와
친구들(SIA&FAM)은 아시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
귀엽고 친근한 동물친구, 수천 년 간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지혜의 책,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용감한 영웅 등
다양한 아시아 각 지역의 귀한 보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둠시니

Eoduksini

초연연도 2023년

장르 어린이연극

창작진 극작·연출 박성찬, 작곡 배미진,
기획 조혜랑, 무대디자인 박성찬,
의상 김정향, 조명디자인 박종석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조직 성찬파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6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3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철수 1일

화물

1톤 화물차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100석~500석



한국의 사랑스러운 요괴 '어둠시니'의 자기존재 찾기 프로젝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몸집이 점점 커지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크기가 작아져 끝내 그 존재마저 사라지게 되는 요괴 '어둠시니'.

어린 어둠시니인 '어둠이'는 오늘도 사람들 사이, 어둠 속 틈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어둠이'는 다시 관심을 받기 위해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상으로 위험한 외출을 한다.

그러다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상처받은 외로운 '아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잊히지 않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어디로 가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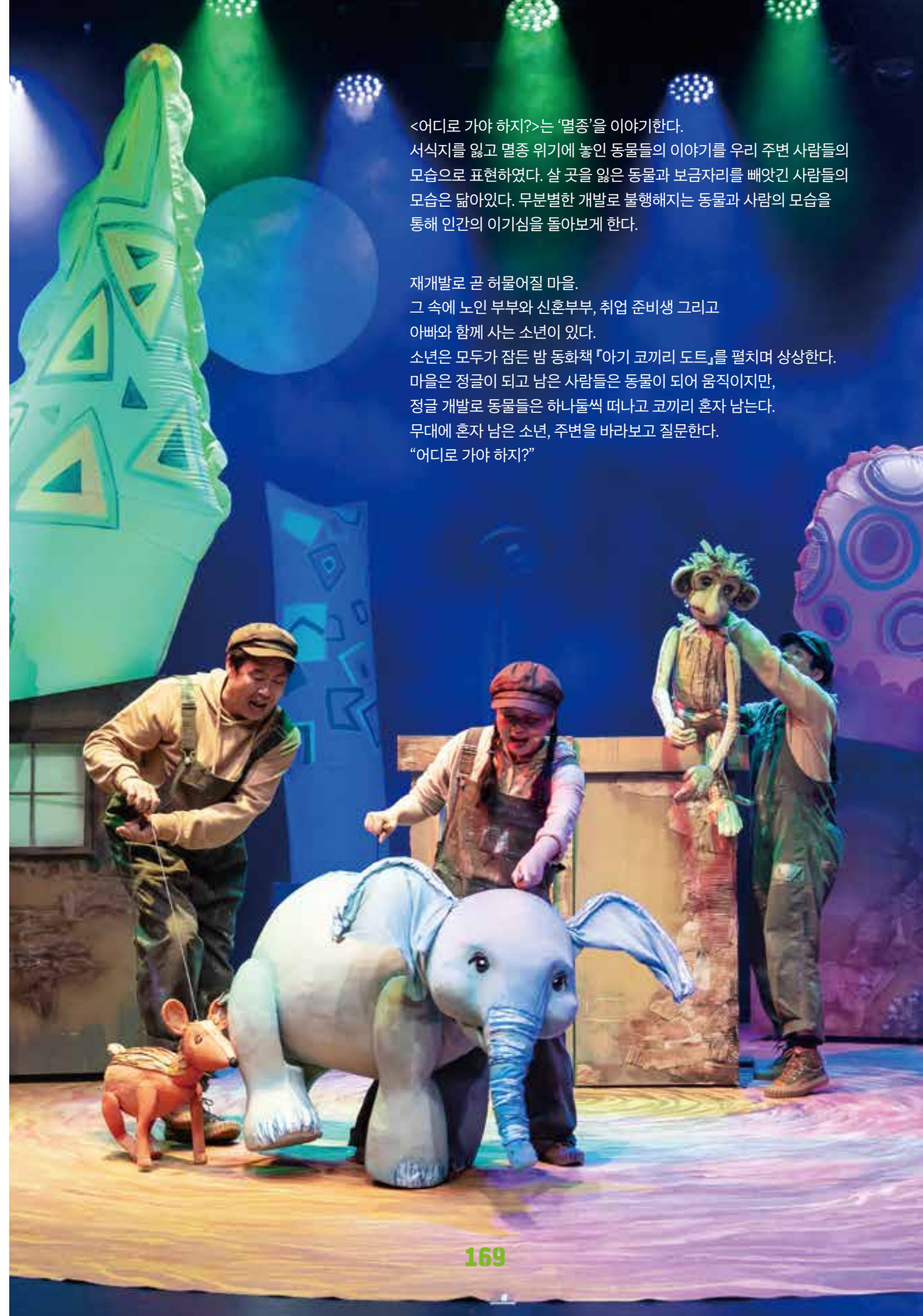
Where should I go?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연극
창작진 연출 박재춘, 작 김수진 서 운,
 음악감독 채석진,
 무대디자인·제작 예술공장(김응형)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놀터 극단 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2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8m × 높이 4m



어디로 가야 하지?
 홍보 영상



<어디로 가야 하지?>는 '멸종'을 이야기한다.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살 곳을 잃은 동물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불행해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한다.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마을.
 그 속에 노인 부부와 신혼부부, 취업 준비생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사는 소년이 있다.
 소년은 모두가 잠든 밤 동화책 『아기 코끼리 도트』를 펼쳐며 상상한다.
 마을은 정글이 되고 남은 사람들은 동물이 되어 움직이지만,
 정글 개발로 동물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코끼리 혼자 남는다.
 무대에 혼자 남은 소년, 주변을 바라보고 질문한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A house that never collapses

초연연도 2023년

장르 팝업 인형극

창작진 극작·미술 노성신, 연출 장은실, 음악 유승찬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스튜디오 햇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6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6m × 높이 4m



집은 나를 탄생시키고 삶을 이어가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워 나가는 공간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머나먼 미래까지 세상은 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변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똑같은 의미를 간직해 줄 우리들의 집.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나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방법을 두가지의 재미난 집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출동! 마임소방관

Let's Go! Mime Artists-Turned-Firefighters!

초연연도 2018년
장르 마임극
창작진 연출 이정훈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판토마임팩토리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셋업 및 음향, 조명, 배우 리허설, 철수 포함 1일
화물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 중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5m × 높이 5m(최소)
 ※ 어린이집, 학교 등 투어 가능



출동! 마임소방관
홍보 영상



소방관 아저씨들의 소방훈련과 화재진압 모습을 마임으로 알아가는 안전교육공연

따분하지 않고 신나는 즐거운 공연방식으로 소방안전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마임, 저글링, 마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으로 변신한 마임맨들의 좌충우돌 안전이야기 공연 시작과 함께 객석에서 무언가를 찾는 마임맨들. 불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요령도 알려주며,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소방호스가 관객들에 손에 쥐어지기도 하며 일부 관객들이 무대에 나와 즐거운 상황에 함께 참여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배워본다.

하티와 광대들

Hati and the Clown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극작 박정운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토박이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5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중극장(500석 이하)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7m × 높이 7m(최소)



하티와 광대들
홍보 영상



비슈누신이 지키는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 떠나는 신비한 모험!

<하티와 광대들>은 '생명열매, 황금열매'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를 소재로 창작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고귀한 희생, 생명, 죽음 등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인형, 가면, 그림자 등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 등 수 많은 삶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인도의 이국적인 모습을 담았다.

황량한 사막에서 마주친 왕과 아이, 그들은 과연 황금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의 사막, 신기루 넘어 '비슈누' 신이 지키는 고귀한 황금나무가 있다. 황금나무에는 생명열매와 죽음열매가 열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인도의 '굽타' 왕은 황금나무에 열려있는 생명열매를 찾아 떠나면 여정을 떠난다. 사막을 해매는 고된 여정 중 '굽타' 왕은 황금나무의 죽음열매를 구하러 가는 아이 '아소'를 만나게 된다. 왕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아소는 왕을 미워한다. 티격태격 우여곡절 끝에 굽타왕과 아소는 함께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게 되고, 황금나무를 지키는 비슈누신은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찾아가는 예술극장

찾아가는 이동형 무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무대로 음향, 조명, LED 전광판이 탑재되어 있는 움직이는 극장입니다.



찾아가는 예술극장

구분	규격 및 내용	비고
차량무대 (19.5톤)	- 차량크기 : 12.565m(w) x 2.430m(d) x 3.78m(h) - 무대크기 : 9.86m(w) x 5m(d) x 3.78m(h) ※ 무대단 높이 1m 내외	
시스템	- 음향 : 콘솔 1EA(MIDAS X32/32CH), 스피커 1식(Main(Nova/840W/4ea), Monitor(Nova/200W/6ea, 700W/3ea), Sub Woofer(Nova/2000W/2ea), LED Speaker(Nova/4ea) / 각 AMP포함) - 조명 : 콘솔 1EA(Avolites), 라이트 1식(LED-BEAM Moving(350w/6ea ·324w/6ea), LED Blind-laser(250W/3ea·200W/2ea) 등] - 영상 : LED 전광판(방수용) 1EA[6.2m(w) × 2.4m(h)] - 기타 : 유·무선마이크(NOVA/10ea·4ea), MR장비(CDP) 등	자체장비 활용
객석	- 외부 공연 공간에 따라 객석 구성 ※ 예시) 광장 : 종이의자 등 간이의자 활용, 계단식 무대공간 : 계단 활용 등	
기타 환경	- 공간에 따라 안내, 시스템부스 등 구성	



	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비고
무대	- 이동식차량 1식				
	무대다리			10	
	조임밴드			6	조임기구 4개
	무대하부 가림막			1	
	계단			2	
	LED 영상판		6144mm X 2304mm	1	
	라바콘(B)			1	
	라바콘(R)			1	
	나무받침목			4	
	빗자루			1	
영상	스케일러	VD WALL	LVP515	1	
조명	- CONSOLE				
	DMX CONSOLE	AVOLITES	PEARL 2010	1	
	SPLITTER	-	SPL-8 DMX Splitter	1	
	- SPECIAL LIGHT				
	BEAM MOVING LIGHT	CHINA	BM-230 / 350w	6	
	LED MOVING LIGHT	CHINA	LM108 RGBW / 324w	8	
	LED BLINDER LIGHT	CHINA	LB-200 / 250w	3	
	LED COLOR LASER	CHINA	LSJ55A - 4구 / 200w	2	
음향	- CONSOLE				
	Digital Console	MIDAS	X32	1	
	- SPEAKER				
	Main Speaker	NOVA	AT2	4	
	Sub Woofer Speaker	NOVA	AB2	2	
	Speaker Bumper	NOVA	AC2	2	
	Monitor Speaker	NOVA	VS12	2	
	Monitor Speaker	NOVA	VS10M	6	
	- AMPLIFIER				
	Main Speaker Amp	NOVA	XPS3600	3	
			XPS2000	2	
	Sub Woofer Speaker Amp	NOVA	XPS3600	2	
	Monitor Speaker Amp	NOVA	XPS1400	3	
	- 기타장비				
	Speaker Processor	NOVA	DC8000	1	
	CP Player	Aplus	CDA2000	1	
	Wireless Mic System	Shure	SLX24/SM58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Sia & Fam
시아와친구들

‘시아와 친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캐릭터입니다.
‘시아와 친구들’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시아(Sia), 고니(Goneee), 페리(Paree), 칼리(Kalee), 엘리(Elee), 키니(Keyne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콘텐츠인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는 공연, 전시, 애니메이션, 동요, 상품 등으로 아시아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상 |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동네캐릭터 공공부문 대상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SNS 채널입니다.
ACCF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체험·전시 어린이체험관 신나는 아시아로의 문화 여행

어린이체험관은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를 주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입니다.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감각과 표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놀이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

유아놀이터는 '시아와 친구들의 무지개 나라 탐험'을 주제로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체험과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가능한 영유아 전용 놀이터입니다.



교육 어린이도서관

책과 함께 하는 어린이들의 문화 공간

어린이도서관은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책을 활용한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국내외 도서 약 2만 여종의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와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일깨워 줍니다.



교육 어린이 창작실험실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즐거움 창작여행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와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함양하고, 실험적 예술창작을 통해 과학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전시·공연 콘텐츠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여름·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 유아 또는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공연 어린이극장

예술적 감성과 꿈을 키우는 흥미로운 상상여행

국내 대표 어린이전용 극장인 어린이극장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화원 내 전 공간에서 국내외 협력 및 공모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창의성과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참여중심적 공연을 통해 능동적인 관람을 지향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류 어린이문화콘텐츠를 소통·공유하는 글로벌 문화여행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문화예술기관과 콘텐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제공합니다.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FUN'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국내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신간도서

그림책과 정기간행물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작은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에서 만나보세요!



세 친구

그림책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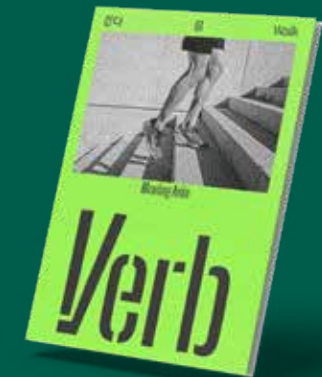
숨 쉬는 도시

팝업북 80,000원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희곡집 12,000원



Verb 창간호

정기간행물 15,000원

본 콘텐츠북에 소개된 작품의 지식재산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예술단체 및 창작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임의 사용 및 도용은 불가하며, 이용 시 반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유통 및 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유통팀
T. 전시/미디어아트영상/다큐멘터리/캐릭터 062-601-4663
공연/필름/찾아가는 예술극장 062-601-4664
E. accfc@accf.or.kr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김선옥
편집 및 총괄 조정란
편집 진행 김혜선 박서현 최현미
주소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홈페이지 www.accf.or.kr

